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 효 진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청소년부모의 양육 결정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202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이 지 연

청소년부모의 양육 결정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조 효 진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이 지 연

인 준 서

이지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5월

심사위원장 김보영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이은진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조효진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부모의 양육을 결정하게 된 경험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 시기에 출산경험이 있는 청소년이자, 자신의 경험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가진 만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10명을 U시에 있는 일시청소년쉼터를 통해 모집하였다. 연구는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반구조화된 면접으로 실시하였고, 수집한 자료는 Giorgi(1985)의 기술적 현상학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청소년부모의 양육 결정 경험의 의미와 구조를 분석한 결과, 중심의미 30개, 드러난 주제 10개, 본질적 주제 4개로 나타났다. 본질적 주제는 ‘불행한 유년시절을 발버둥치며 성장함’, ‘냉담한 세상 속에서 뱃속의 생명을 나의 삶으로 끌어안기’, ‘불행한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구한 삶의 대물림’, ‘부모라는 이름의 무게 견디기’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청소년부모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재혼, 이별과 같은 구조적·심리적 결손 경험이 있었고, 대다수가 정서적 방임, 신체적 폭력, 학대와 빈곤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청소년부모가 평범한 가족을 부러워하며 갈망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출산 및 양육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발점이 되었다.

둘째, 청소년부모는 임신 후 냉담한 주변의 반응과 두려움, 막막함으로 낙태를 고민하기도 하였으나, 생명의 신비, 책임감, 애착, 가치와 윤리적 판단 등의 이유로 낙태하지 않았다. 또한 주된 심리적 요인으로 자신의 부모 같은 부모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이에 출산과 양육을

결정했음이 나타났다. 부모에 대한 원망은 자신이 부모가 된 역상황에서 자신과 달리 자녀를 안정적인 가정에 살게 해야겠다는 욕구로, 또한 자신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기회로 느끼며 탈피 시도 과정을 경험하였다.

셋째, 청소년부모는 배우자와의 잦은 다툼이나 결별, 경제적 어려움, 어린 나이에 부모됨의 이중적 역할 등의 고단한 현실의 벽에 맞닥뜨렸다. 불안했던 유년시절의 굴레가 자녀에게도 대물림되고 있음을 직감하는 직면 과정을 경험하면서 좌절감과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넷째, 청소년부모는 자신의 가정을 통하여 행복감, 안정감, 평범함, 평안함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가정의 안정감, 아이가 주는 정서적 행복감, 시설 등의 경제적 지원은 삶을 버틸 수 있는 자원이 되어주었고, 진정한 부모로 성장하는 도전 과정을 겪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상담적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논하였으며, 후속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부모, 출산, 양육, 양육결정경험,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

목 차

논문개요

목차

표 목차 / 그림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문제	5
II. 이론적 배경	6
1.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의 정의 및 실태	6
1) 청소년부모의 정의	6
2) 청소년부모의 실태	7
2. 국내·외 선행연구	8
1) 청소년의 임신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요인	8
2) 청소년의 출산·양육 결정 경험에 관련된 요인	12
III. 연구 방법	15
1. 연구 설계	15
2. Giorgi 기술적 현상학	15
3. 연구 참여자	18
1) 연구 참여자 선정	18
2)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19
4. 자료 수집	20

1) 자료 수집 방법	20
2)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	21
5. Giorgi 자료 분석	22
1) 전체 인식단계	22
2) 의미 단위(meaning units) 구별 단계	22
3) 학문적인 용어 변형 단계	22
4) 상황적 구조기술 단계	23
5) 일반적 구조기술로의 통합 단계	23
6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성	23
1) 연구의 엄격성(Rigor)	23
2) 연구의 윤리성	25
3) 연구자의 노력	26
IV. 연구 결과	27
1. 연구 결과 목록	27
2. 연구 참여자의 삶의 경험	29
3. 상황적 구조기술(참여자의 개별적 상황)	39
4. 일반적 구조기술	69
V. 논의	72
1. 연구의 결론 및 의의	72
2.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81

참고문헌 /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Giorgi 기술적 현상학 5단계 자료분석 절차	17
표 2.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19
표 3. 중심의미·드러난 주제·본질적 주제 목록	27

그 립 목 차

그림 1. 본질적 주제에 대한 구조모형	69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는 정책적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저출산에 대한 우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소외된 청소년들도 있다. 통계청(2022)은 향후 청소년의 출산율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여성가족부(2022)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청소년의 출산은 지속되고 있기에 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2021)의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에서는 성 경험 청소년의 첫 관계 시기가 2016년 평균 13.1세, 2018년 13.6세, 2021년 평균 14.1세로 나타나 성 경험의 시기가 여전히 저연령 수준에 머물고 있음이 나타났고, 이러한 성 경험 저연령화는 청소년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불어 백혜정, 김지연, 김혜영 외(2012)의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에서는 임신의 이유로 ‘피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9.1%였고, 이와 같이 성 관념과 성 지식 또한 증가요인이 될 수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오늘날 사회는 본래의 규범적이고 권위적 구조로부터 탈피하며 변화하고 있고, 인터넷,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 등 개인 미디어의 보급, 개방적인 문화의 유입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들도 증가요인에 일조하고 있다. 게다가 가족 규모 축소, 맞벌이 가족, 부모의 이혼, 재혼 등 가족의 구성 및 형태변화로 인해 가족 결속력의 약화 됨 또한 증가요인으로 보고 있다(김혜영, 2010).

과거에는 청소년들의 임신을 가족의 수치로 여겨 낙태를 종용하거나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백혜정, 김지연, 2013; 최승희, 2003; 정미경, 김승용, 2020). 하지만 최근에는 청소년이 양육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양육 선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김영정, 구화진, 2019; 김지혜, 2021; 백혜정, 김지연, 2013; 이윤정, 2021). 유사한 결과로 최근의 청소년부모에 관한 실증연구에서도 청소년부모의 96.1%가 스스로 출산을 결정했다고 답했으며, 청소년부모의 95.7%가 처음부터 직접 양육할 생각이었다고 보고했다(여성가족부, 2022).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이 스스로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는 주체적인 결정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청소년을 청소년한부모 또는 청소년미혼모·부, 청소년부모로 구분하고 있다. 청소년한부모는 미혼으로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만 9세~24세 이하 청소년을 나타내고 있으며(국가법령정보센터, 2011), 이를 청소년미혼모·부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청소년부모란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관계인 만 9세~24세 이하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을 뜻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한부모나 미혼모·부의 경우 임신 상황에서 대부분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여 혼자 양육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지만(이명순, 박주현, 2008), 청소년부모는 출산에 대한 부부의 공동의 책임이 존재하고, 자녀 양육을 합의하여 이루어진 가정의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나 자녀 양육의 양상은 미혼모나 한부모 연구에서 나타나는 경험과는 다를 수 있다. 김혜영(2010)은 기존의 보수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청소년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논의는 주로 청소년미혼모나 한부모 카테고리 연구 안에서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고 보았고, 이러한 연유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기초 정보와 자료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상황이며 더 더욱 제도적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최근에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 및 사회적인 시선 변화를 시도하려는 모습도 있다. 일례로, 청소년 시기의 임신과 출산을 한 청소년부모의 삶을 보여주는 TV 프로그램 ‘고딩엄빠’는 대중매체에서는 처음으로 심도 있게 청소년부모와 그들의 가정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시도에도 청소년부모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드물다. 청소년부모의 법적 지원 근거가 2021년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되었기에, 이전의 누적된 실태나 데이터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로도 볼 수 있다.

한편, 공동의 육아를 하는 청소년부모에게도 출산 후 양육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청소년들은 본인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준비와 함께 부모 됨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므로(김혜영, 2010), 청소년의 양육 결정은 중요한 변화를 감내해야 한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대부분 임신으로 가족과 심한 반대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정미경과 김승용(2020)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혼인 전 임신은 가족의 수치로 여겨졌으며, 대부분 낙태를 제안받게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청소년의 출산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평탄하지 않은 삶이 예상되더라도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순, 김은영, 2008; 김혜영, 2010; 백혜정, 김지연, 2013). 심한 경우에는 원가족과의 단절을 토대로 출산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양육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아이에 대한 생계와 책임을 온전히 홀로 맡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이현주, 2011).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경제 상황의 불안함, 주변 사람들의 압력(최승희, 2003), 의지할 데 없는 고립감과 두려움(정미경, 김승용, 2020), 양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현주, 2011), 미확립된 정체성을 가진 채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복합적 어려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과 부모의 역할의 정체성 혼란(김은영, 2019; 김지혜, 2021; 이윤정 2021), 부족한 정보와 사회적 지

원(백혜정 외, 2012) 등을 주요한 어려움으로 꼽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출산이나 양육을 결정하게 한 원인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소년미혼모, 한부모 연구에 국한되어 많지 않았으며, 이러한 연구들에서 도출된 출산 결정 요인은 다음과 같았다. 청소년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나 가치를 인식하기 위해서(김은녕, 2019),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서(김혜영, 2010), 사랑의 결실이라 믿었기 때문에(서정애, 2009), 내가 낳기를 위해서(백혜정 외, 2012), 임신 중절을 시기를 놓쳐서, 남자 친구의 지지(김혜영, 2010) 등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소수의 질적 연구조차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도덕적, 윤리적 책임감과 같은 요인 이외에 이들이 겪은 내적 갈등과 삶의 경험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일부 과거의 연구들에서는 청소년 임신에 관련하여 도덕적 부분을 강조하며 성, 피임지식 부족 등 인지적인 측면(윤혜미, 1999; 이명순, 박주현, 2008)을 크게 다루었으나, 서정애(200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하여 다면적이고 복잡한 심리적 과정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기존 대다수의 출산경험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사회적 변화와 외부요인들에 초점을 맞춘 간단한 설문문을 통한 자기 보고로 이루어진 연구(김신정, 양순옥, 정금희, 2004; 노충래, 김원희, 2004; 이영호, 박지윤, 2021; 윤미현, 이재연, 2001; 이지연, 2001; 장복례, 2006; 주성홍, 장동욱, 백지영, 이지영, 손인숙, 김수녕, 조성진, 2005; 최승희, 2003; 한영주, 1998)가 대다수였고, 어떠한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출산과 양육을 결정했는지, 그 과정에서의 경험은 어떠한 것인지 등의 내적 과정을 심도 있게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었고,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이러한 경험을 살펴본 연구는 더더욱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려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게 된 청소년부모의 내적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대상의 경험이나 경험을 이해하기에 적절한 연구방법인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청소년부모가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게 된 경험의 사례의 독특성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청소년부모가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게 된 현상의 공통적이면서 본질적인 구조와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Giorgi(1985)의 기술적 현상학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가 대부분 청소년미혼모와 청소년한부모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게 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실태조사 정도로 이루어져 이들의 내적 경험을 탐색하기 어려웠던 점을 토대로 청소년부모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대상자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 중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가진 만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다. 이들이 출산과 양육을 하기로 결정하게 된 경험이 어떠한지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들의 경험과 어떠한 관련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청소년부모가 된 청소년이 양육을 결정하게 된 경험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부모의 출산 전의 삶의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부모의 출산·양육 결정과정에서의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부모의 출산 후의 삶의 과정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의 정의 및 실태

1) 청소년부모의 정의

대한민국은 청소년의 나이를 법률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국가법령센터, 1999; 국가법령센터, 2007). 하지만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는 법이 「청소년 기본법」이다. 이 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폭넓게 쓰이고 있다(국가법령센터, 1991).

청소년부모에 관련한 법률은 두 가지로, 모두 청소년기본법을 기준한다. 첫번째로, 청소년한부모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항 청소년한부모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 정의하고 있다(국가법령센터, 2011).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에 관한 법률은 2011년 4월 12일에 개정되었다.

두번째로, 청소년부모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6항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국가법령센터, 2021). 청소년부모에 관한 법률은 2021년 3월 23일에 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에서 모든 나이는 만으로 통일하였다.

2) 청소년부모의 실태

통계청(2023)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출산 추계를 전망하여 15세~24세 청소년의 출산율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청소년 대상의 특성으로 인해 실제 통계 집계는 정확성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청소년부모의 법률 개정이 2021년이었음을 고려해본다면 이전의 누적된 자료나 데이터가 부족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대략적인 추정만 가능하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모의 출생아 수, 청소년미혼모·부 국가 통계, 청소년부모·한부모의 가구주 통계를 통하여 청소년의 출산·양육 현황에서 청소년부모의 실태를 어렵잡아 짐작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청소년 모가 출산한 출생아 수로 최근의 출산 현황을 가늠해볼 수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청소년 모가 출산한 출생아 수는 8,099명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청소년미혼모·부 집계에서 청소년한부모의 현황을 가늠해볼 수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청소년미혼모는 1,430명, 청소년미혼부는 31명으로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미혼모·부는 총 1,461명으로 집계된다. 사실상 미혼모·부는 대부분 제도적 지원을 받는 대상이 집계되었기에, 앞서 설명한 청소년 모의 출생아 수와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까지는 알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가구주¹⁾의 통계에서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한부모의 형태로 구성된 가구 수를 가늠해볼 수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가구주의 통계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한부모로 구성된 가구는 26,983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같은 현황을 통하여 청소년부모의 실태는 집계를 통한 추정만 가능하다(이영호, 박지윤, 2021). 현 집계에서도 제도적 지원 대상 외로 집계되지 않은 청소년은 제외되었을 수 있고, 출산 후 출생신고

1) 한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뜻함(통계청, n.d.).

누락 및 편법신고 등이 있을 수 있어 수치의 정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영정, 구화진, 2019). 또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두려워 통계 집계가 될 수 있는 시설을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며(정미경, 김승용, 2020),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유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대상적 특성을 감안하면 집계 결과는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김영정, 구화진, 2019; 백혜정, 김지연, 2013; 은주희, 임고운, 2019).

2. 국내·외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결정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해보고자 청소년의 가족 경험과 관련된 심리·정서적 측면으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고, 청소년의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청소년부모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선행연구의 대다수는 임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청소년미혼모, 청소년한부모 관련 연구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1) 청소년의 임신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요인

선행연구 결과 청소년의 임신 및 출산에는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임신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요인으로는 청소년의 부모가 이혼 및 재혼, 가족의 유무, 가정폭력 및 저소득층 가정에 속할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혜영(2010)의 청소년미혼모의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인 청소년미

혼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원가족이 재혼가족일 가능성이 높았고, 나타난 결과로 청소년기에 부모의 이혼, 재혼은 청소년 임신에 일정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윤혜미(1999)의 청소년 임신에 관한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가족과 분리되어 살면 임신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기능이 저하된 가족이거나 결손가족일수록 청소년의 성행동이 더 빨리 시작된다는 견해였다. 이윤정(202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부모의 원가정의 유형에서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을 합산한 비율이 33.5%이라는 다소 높은 비율에 속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Thompson, Bender, Lewis와 Watkins(2008)는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이 임신할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가출과 임신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었다. 서정애(2009)의 청소년미혼모 질적 연구에서는 가족 갈등, 폭력으로 인한 가출 동기와 임신이 연결됨을 제기하였다. 안정적이고 따뜻한 돌봄의 부재는 이들을 외부로 발길을 이끌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는 집은 더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며, 텅 빈 공간일 뿐이라는 것이다(변윤언, 원희옥, 2017). 배영미(2001)의 청소년미혼모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의 가출경험이 임신이 증가시키는 요인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해외 연구 Thompson 등(2008)에서도 청소년 가출과 임신에 관해 연관성을 나타냈으며, 10대 가정 밖 여성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임신할 가능성이 4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또한 청소년 임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정 폭력과의 관련성을 들 수 있다. 신혜섭(2005)의 가정폭력과 비행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였을수록 청소년의 성비행, 성행동 집단에 속할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또한 20세 이하의 청소년에 관련하여 가정 학대와 청소년 임신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 Madigan, Wade, Tarabulsky, Jenkins과 Shouldice(2014)에서는 청소년은 신체적, 성적 학대를

경험할수록 임신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신체적 학대가 있는 청소년이 청소년기에 임신할 가능성이 약 1.5배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성적 학대의 경험은 여자 청소년 임신을 더 높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기 성적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 임신의 위험이 2배 증가했음을 나타낸 Noll, Shenk과 Putnam(2009)의 14개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과 성적 학대 전력이 있는 청소년의 임신 확률이 약 5배 증가함을 나타내는 최근의 메타 분석 Homma, Wang, Saewyc와 Kishor(2012)을 뒷받침 하고있다. 또한 Williams와 Vines(1999)의 현상학 연구에서 13세에서 20세 사이의 7명의 청소년부모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치, 부모와의 관계 붕괴를 경험하였음이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과 임신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서정애(2009)는 저소득층 결손 가정 청소년은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존재이므로 어린 시절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하며, 자퇴, 가출, 연애, 동거, 임신으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또한 저소득층 결손 가정의 자녀들일수록 성에 대한 부정적 경험의 노출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인숙, 1998; 송명희, 2003 재인용). 송명희(2003)의 저소득층 모자가족 질적연구에서는 이들은 생계와 자녀교육비, 부채상환을 위하여 자녀에게 신경을 쓸 수 없고 자녀와의 대화 정도도 빈약했으며, 자녀를 놀이방 등에 맡기는 방임적 모습이 관찰되었다고 하였다. 신명호(2003)는 저소득층 가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이며, 부모가 적극적인 지도와 선도적 역할이 적다고 보았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다른 부모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기도 한데, 이는 자신의 교육수준이나 정보가 부족해서이기도 하고 자녀와 대화로 조율하려는 경향이 적거나, 경제적인 이유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듯 가계 소득 또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청소년의 임신의 관련성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해외 연구 Young, Turner, Denny, Jenkins와 Young(2004)의 10대 임신

전례를 알아보기 위한 종단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10대 임신 위험이 더 커진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낮은 소득과 더불어 자녀에 대해 개입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Hogan과 Kitagawa(1985)는 저소득 가정이 10대 임신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저소득 가정일수록 부모의 행동 통제 능력이 감소했으며 부모의 사회 계급과 청소년의 임신이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빈민가 지역의 청소년은 1/3 이상이 임신경험이 있고, 흑인 하층 가정의 10대들이 흑인 상층 가정의 10대들보다 첫 임신율이 95% 더 높았다고 언급했다. 불안정한 가정의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초기 성교 비율이 1/3 높으며, 통합적으로 빈곤, 빈민가 거주, 불완전한 가족, 부모의 개입 부족 등의 사유를 가진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8.3배의 임신 확률이 높았다. Williams와 Vines(1999)도 임신한 청소년의 부모가 가난한 과거를 갖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거론하기도 했다.

또한 청소년 임신과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서정애(2009)는 청소년미혼모의 가족 규범 구속력이 매우 약했고, 부모는 자녀의 문제의 상황에도 수용해 버리거나 관대한 모습이 관찰되었다고 하였다. 자녀와 친밀한 정서적 교류가 부족하고, 자녀를 돌봄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음이 임신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 또한 성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청소년들은 비교적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가정의 만족감이 떨어지며, 부모와 소통, 정서적 교류가 원활하지 않다고 나타났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윤희미, 1999 재인용). Trinidad-Noguera, Chávez-Montes de Oca, Carrasco-Ponce와 Sánchez-Valdivieso(2015)의 질적연구에서도 10대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에 집중했고 정서적 교류가 없는 가족 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아버지의 부재를 10대 임신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 대부분의

10대 청소년은 부모와 그다지 관계가 좋지 않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또한 부모의 부재와 임신의 관계에 대해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10대가 부모와 함께 사는 10대보다 원치 않는 임신을 임신할 가능성이 2.6배 높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Williams와 Vines(1999)도 10대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 밖의 요인으로 청소년들은 험난한 사회에서 의지할 대상을 찾아 이성교제를 하게 되는 것도 청소년 임신 증가의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김혜영, 2010; 서정애, 2009; 윤혜미, 1999). 청소년기는 어른들보다는 또래 집단의 영향력을 많이 받으며, 부정적 정서를 또래로부터 신체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통해 위로받으려는 경향(Benoit, 1997; 윤혜미, 1999 재인용)을 지니기에 김혜영(2010)은 이와 같은 친밀감, 유대감과 같은 이유로 성 경험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서정애(2009)도 이성 친구를 자신의 삶에서 안정적인 존재, 돌봄을 제공해주는 존재로서 그 의미를 이상화하고 있음을 제기했다. 이성 친구는 돌봄이 부재했던 가족 역할을 대신해주기도 하였고, 이들의 가정 밖 생활을 정당화하기도 하였다.

2) 청소년의 출산·양육 결정 경험에 관련된 요인

사회에서는 임신한 청소년을 비행 청소년 또는 성적·윤리적 일탈자로 치부하고(이현주, 2011) 청소년의 임신은 창피한, 부끄러운, 올바르지 않은 일로 간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이현주, 송진아, 2011). 이로 인해 임신한 청소년은 차별과 부정적인 편견과 사회적 낙인과 규제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서정애, 2009). 또한 가족과 심한 반대와 갈등, 단절을 경험하며 가족의 수치로 여겨지기도 하며(정미경, 김승용, 2020), 고립감과 외로움, 우울과 불안, 자존감 하락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이현주, 2011).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준비되지 않은 경제적 여력, 주변 사람들의 압력(최승희, 2003), 의지할 데 없는 고립감과 두려움(정미경, 김승용, 2020), 양육에 대한 전문한 지식(이현주, 2011), 미확립된 정체성을 가진 채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복합적 어려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과 부모의 역할의 정체성 혼란(김은영, 2019; 김지혜, 2021; 이윤정 2021) 등 헤쳐나가야 할 어려움이 많다.

과거에는 청소년들의 임신율 가족의 수치로 여겨 낙태를 종용하거나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백혜정, 김지연, 2013; 최승희, 2003; 정미경, 김승용, 2020). 하지만 최근에는 청소년이 양육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양육 선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김영정, 구화진, 2019; 김지혜, 2021; 백혜정, 김지연, 2013; 이윤정, 2021). 유사한 결과로 최근의 청소년부모에 관한 실증연구에서도 청소년부모의 96.1%가 스스로 출산을 결정했다고 답했으며, 청소년부모의 95.7%가 처음부터 직접 양육할 생각이었다고 보고했다(여성가족부, 2022).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이 스스로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는 주체적인 결정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양육 결정에 관한 요인을 김은영(2019)의 10대 미혼모에 관한 질적연구에서는 임신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깨달음, 내면의 성장 등을 요인으로 보았으며, 아기로 인해 생긴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낙태나 입양하지 않고 양육의 길을 택했다고 했다. 다른 요인으로서는 아기 아빠의 지지를 받거나 함께 양육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출산을 결정하게 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김혜영(2010)의 질적 연구에서는 아기의 친부의 ‘출산하자’, ‘결혼하자’ 등의 수용과 지지는 여자 청소년의 출산 결심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은 출산과 양육이라는 도전에 맞서는 주체자로서 기꺼이 그 과정을 겪으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양육의 의지를 다짐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정애(2009)의 질적 연구에서도 양육 결정

의 요인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이성 친구와 함께 만든 아기’라는 것으로 임신을 이성 친구와의 결실로 의미화, 정당화함을 제기했다. 이는 청소년 시기의 단순 교제 관계에서 임신과 출산으로 의미구성이 확장되어 감을 의미하고 있다.

그 외의 출산·양육 요인으로 김혜영(2010)은 신비롭고 경이롭게 느껴서, 아기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이 생겨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생겨서, 윤리적 판단 등을 출산 요인으로 들었다. 또한 뱃속에 있는 아기에 대한 모성애와 사랑의 감정을 느껴서(김은녕, 2019), 아이를 낳고 싶어서(백혜정 외, 2012)도 출산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자발적 출산의 이유로 임신 중절을 놓쳐서(김신정, 양순옥, 정금희, 2004; 윤희미, 1999; 이명순, 박주현, 2008; 장복례, 2006) 또한 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나이로 부모가 된 청소년부모가 양육을 결정하게 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살펴보기 위해 설계되었다. 청소년기의 임신으로 가족 갈등, 학업 곤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수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하여 양육을 결정하게 된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복잡적이고 상세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한 질적 연구로 수행하였으며(Creswell & Poth, 2018), 연구자료의 수집은 심층 면접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승인 번호: SSWUIRB-2023-004)을 최종 승인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2.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특정 집단을 연구하려 하거나, 쉽게 측정할 수 없는 요인들을 확인하거나, 침묵 속에 있는 목소리를 들으려 할 때, ‘현상으로 환원’하며 핵심적인 본질에 가까워지기에 적합한 연구이다. 인간이 경험한 현상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이며, 연구 참여자의 실재에 접촉하여 총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다(Giorgi, 1997). 현상학의 목적은 인간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행동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개인의 경험들을 보편적 본질에 대한 기술로 축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의 진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이 체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드러내는’ 귀납적이고 기술적(descriptive)인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편견과 틀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생생하고 고유한 경험과 주관적 세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있는 그대로’, ‘사태 그 자체로(Zu den sachen selbst)’, ‘현상(現象, phenomenon)으로’, ‘환원적 태도’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의 경험과 배경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그 경험에 대한 의미 파악과 서술한 내용을 토대로 보편적인 의미를 도출해냄으로써 경험의 본질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Creswell & Poth, 2018; 김미옥, 2020;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김영희, 유인영, 이희영, 1999; 배상철, 2019; 이남인, 2005; 이남인, 2014; 조용환, 2012; 조윤진, 김은혜, 2022).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 중에서도 Giorgi(1985)의 기술적 현상학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Giorgi는 현상학을 창시한 현상학의 아버지 후설(Edmund Husserl)의 근본정신에 입각해 현상학적 심리학의 영역을 개척하였다(이남인, 2014). 기술적 현상학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서 비롯된 구술을 괄호 치기 하며 ‘현상학적 판단중지’와 ‘자유 변경의 방법’을 거쳐 기술하는 방법으로(Giorgi, 1997),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적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전체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적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기에 유용하다(이남인, 2005; 이남인, 2014). 본 연구의 주제인 청소년부모가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게 된 경험의 고유한 경험의 독특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청소년부모가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게 된 현상의 공통적이면서 본질적인 구조와 의미를 ‘사태 자체로 돌아가서’, ‘선입견에서 벗어나’ 확인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Giorgi(1985)의 기술적 현상학에서는 참여자들의 현상의 의미와 본질을 규명하고자 상황적 구조 진술과 일반적 구조 진술을 도출한다. 상황적 구조 진술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상황에서의 개인적 특성이나 성향을 포함한 개별적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일반적 구조 진술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적 경험에 대한 본질과 의미들을 진술한다(Giorgi, 2012).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부모가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게 된 개별적인 경험의 구조와 의미가 나타났고, 동시에 청소년부모가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게 된 현상의 공통적이면서 본질적인 구조와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 분석 절차는 5단계로 전체 인식단계, 의미 단위(meaning units) 구별 단계, 학문적인 용어 변형 단계, 상황적 구조기술 단계, 일반적 구조 기술로의 통합 단계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절차는 표 1 과 같다.

표 1. Giorgi 기술적 현상학 5단계 자료분석 절차

1단계	전체 인식 단계	연구 참여자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녹취된 텍스트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		
2단계	의미 단위 (meaning units) 구별 단계	연구 주제 현상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의미 단위를 추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전체 텍스트를 의미단위로 나누어 분석, 명명하기
▼		
3단계	학문적 용어 변형 단계	연구 참여자의 일상 표현과 중심의미를 찾고 심리학적 언어로 변형하기
▼		
4단계	상황적 구조기술 단계	중심의미를 통합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토대로 상황적 구조기술을 만들기
▼		
5단계	일반적 구조기술로의 통합 단계	연구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나타난 경험의 의미를 일반적 구조기술로 통합하기

3.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하여 U시 일시청소년 쉼터 기관장의 승인하에 모집하였다. 청소년 상담 분야 전문가들이 본 연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록 1의 <모집 안내문>을 제공하였고, 연구에 관심을 보이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할 의사를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정성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행 청소년복지지원 법령상으로는 만 9세에서 24세로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로 부모가 함께 양육하고 있는 부부를 청소년부모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부모에 해당하더라도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자신의 경험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가진 만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부모 모두 연구에 참여할 필요는 없음을 안내했다. 또한 현재 부득이 혼인 또는 사실혼 상태로 함께 양육하지 않는다면 사유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질적 연구의 연구 참여자 수는 제한이 없으나 현상학 연구에서는 주로 3명에서 15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Creswell & Poth, 2018),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수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수가 너무 작은 경우 전체 연구 참여자들의 주관적 인식을 가로지르는 보편적 본질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고, 연구 참여자 수가 많을 때는 관찰력이 떨어지고 연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김미옥, 2020; 김성은, 2022).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최종 연구 참여자로 10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2)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최종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출산 후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기혼의 청소년부모 9사례와 미혼의 청소년부모 1사례를 포함하여 총 10사례이다. 미혼의 청소년부모 I는 임신을 알고 난 후 아기 아빠는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잘 키우자 합의하였으나, 부득이 임신 시점에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물리적 이별 상태가 지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청소년한부모, 청소년미혼모와 차별점이 있기에 연구 참여자로 포함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 참여자 10명의 개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선정된 참여자의 성별은 여자 8명(80%), 남자 2명(20%)이었다. 출산 당시의 연구 참여자의 나이는 만 18세 이하 5명(50%),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5명(50%)였고, 배우자의 나이는 만 18세 이하 4명(40%),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6명(60%)이었다. 혼인 여부는 기혼 9명(90%), 미혼 1명(10%)이다. 참여자의 부모의 이혼 여부에서는 이혼 가정 9명(90%), 일반 가정 1명(10%)이었고, 배우자 부모의 이혼 여부는 이혼 가정 7명(70%), 일반 가정 2명(20%), 별거 후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정 1명(10%)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력은 고졸 6명(60%), 중졸 4명(40%)이었으며, 현재 직업으로는 주부 7명(70%), 제조업 2명(20%), 무직 1명(10%)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이름	성별	현재 나이(만)	출산 당시 나이(만)		첫째 자녀 나이(만)	자녀 수	혼인	이혼가정		학력	직업
			참여자	배우자				참여자	배우자		
1 A	남	22세	18세	18세	3세	3	기	O	O	고졸	제조업
2 B	여	21세	17세	17세	3세	2	기	O	O	고졸	주부
3 C	여	21세	18세	24세	3세	2	기	X	X	중졸	주부
4 D	여	23세	21세	20세	1세	2	기	O	O	고졸	주부

5	E	남	22세	19세	20세	3세	1	기	O	O	고졸	무직
6	F	여	23세	20세	19세	3세	1	기	O	O	중졸	제조업
7	G	여	21세	18세	18세	3세	3	기	O	O	중졸	주부
8	H	여	20세	19세	23세	1세	2	기	O	X	고졸	주부
9	I	여	23세	20세	23세	2세	1	미	O	O	고졸	주부
10	J	여	22세	17세	18세	5세	3	기	O	사별	중졸	주부

4. 자료 수집

1) 자료 수집 방법

현상학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내용을 녹음한 뒤 필사하여 연구자료로 삼는다(이남인, 2014). 따라서 자료는 주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생생하고 상세하게 기술(description)하는 심층 면접을 통해 얻었다. 현상학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것은 기술(description)이다(Giorgi, 1985; Giorgi, 1997; Giorgi 2012). 연구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하여 수집하는 일이 중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진술을 참여자의 언어로 수집하고, 그 진술을 토대로 개방형 질문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방금 말씀하신 ~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에 대한 경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등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묘사와 심층적인 감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질문하였고, 비언어적인 표현까지 메모하였다. 연구자는 모든 심층 면접에서 사전 지식을 배제하려 노력하며 현상학적 환원의 태도를 견지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2023년 2월부터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는 3월부터 4월까지 순차적으로 면접을 진행하며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 면접을 하기 전에 연구자는 전화로 연구목적과 취지 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하여 연구 참여자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였다. 심층 면접 당일에는 연구 참여동의서와 설명문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기간, 연구 방법, 개인 정보와 비밀보장의 원칙, 자발적 연구 참여와 중지에 관한 설명을 하였으며 만약 면접 중 과거의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반추하여 심리적인 불편감을 느낄 경우 연구자 및 연구책임자와 논의할 수 있고,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연계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면접 시간은 1회당 평균 60분 내외로 면접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집, 공원, 커피숍 등)와 시간에 맞춰 진행되었다. 이후 자료 분석과정에서 추가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구하고 대면 또는 전화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의 전 과정에서 판단중지와 끊임없는 성찰적 태도를 지키고자 경계하였다.

2)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

연구 참여자들의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각기 다른 삶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출산 전의 삶의 경험과 출산 결정 시기, 출산 후 경험을 모두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연구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구술과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위해 내용이나 흐름에 따라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를테면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진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진술을 토대로 개방형 질문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의 내용은 부록 4의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에 제시하였다.

5. Giorgi 자료 분석

1) 전체 인식단계

전체 인식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진술의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내용을 꼼꼼하게 반복하여 파악한다. 즉, 녹취, 축어록, 필사된 메모 등을 반복하여 듣고 읽으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인지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전체적인 진술을 다루기 때문에 각별히 연구자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주의하였고, 모든 면접의 녹취를 꼼꼼하게 들으며 축어록을 전사하였으며 전사된 자료는 10회 이상 정독하였다.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주의하였다.

2) 의미 단위(meaning units) 구별 단계

의미 단위 구별 단계에서는 전체 텍스트의 의미 단위(meaning units)를 추출하는 과정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출산과 양육을 경험하는 과정의 진술에서 강조된 부분, 의미 전환이 발생한 부분, 특징적인 내용이 드러나는 부분, 새로운 의미가 나타나는 부분 등을 확인하여 밑줄을 긋고 의미 단위를 나누었다. 또한 연구 주제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주제화 시킬 수 있는 의미 단위가 관찰되는 지점들을 표시하였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연구자의 지식이 관여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괄호 치기’를 하며, 10명의 필사 자료를 주의 깊게 읽으며 진술된 텍스트를 꼼꼼히 살피는 것에 유념하며 참여자의 언어가 그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학문적인 용어 변형 단계

학문적인 용어 변형단계에서는 드러난 의미 단위들, 즉 연구 참여자의 언

어를 적절한 학문적인 용어, 심리학적 언어로 변형하는 단계이다. 의미 단위들을 조합하여 주제화를 하고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발상 변환을 통하여 중심의미를 ‘반성과 자유 변경 과정’을 통하여 학문적인 용어로 변형시키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과도한 발상의 비약을 경계하며 현상학적 환원적 자세를 유지하려 하였다.

4) 상황적 구조기술 단계

중심의미를 통합하며 연구 참여자의 특성과 개별적 경험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상황적 의미구조를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출산 전, 후의 삶의 경험에서 나타난 개별적 의미에 대해 파악하였다.

5) 일반적 구조기술로의 통합 단계

일반적 구조기술로의 통합 단계에서는 변형을 거친 의미 단위들을 구조로 통합하는 작업을 한다. 중심의미들을 통합하여 연구 참여자 경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개인의 경험 관점의 상황적 구조기술을 만든다. 이후 상황적 구조기술에서 나타난 연구 참여자의 개별적 경험의 의미를 일반적 구조기술로 통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합하였다.

6.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성

1) 연구의 엄격성(Rigor)

질적 연구에서는 타당도(Validity), 신뢰도(Reliability)라는 양적 용어 대신에 ‘엄격성’, 엄밀성, 진실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엄격성’은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 이는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괏값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며,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가와 관련된다 (Lincoln & Guba, 1985).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1985)의 중립성, 일관성, 진실성, 적용가능성의 기준을 따라 연구의 엄격성을 고려하였다.

첫째로, Giorgi(2012)는 현상학 연구에는 연구자의 올바른 태도가 우선적임을 강조했다.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연구의 전 과정과 연구의 결과에 대해 연구자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최대한 경계하였다. 또한 판단중지와 끊임없는 성찰적 태도를 통해 중립성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둘째로,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연구의 자료수집과 면접 등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기준을 지키고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늘 경계하였고, 분석과정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지도교수와 질적 연구 전문가 및 교수, 대학원생 동료의 자문을 받아 일관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학문적인 용어 변형단계에서 현직 국어교사의 검수를 한 번 더 받았다.

셋째로, 진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있는 그대로’, ‘경험에 근거하여’ 기술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도록 충분한 라포를 형성하고,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 위치, 장소로 직접 찾아가 면접을 진행하여 최대한 불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용가능성, 즉 일반화의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집된 자료에 대해 과 해석된 부분은 없는지, 부족한 진술은 없는지, 다른 연구들과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는지,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다른 맥락이나 주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2) 연구의 윤리성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승인 번호: SSWUIRB-2023-004)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윤리에 대해 부록 1의 <연구 참여자 설명서>와 부록 2의 <연구 참여자 동의서>를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권익 옹호를 위한 윤리적 사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참여 도중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둘 수 있으며, 연구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은 없고 연구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자료를 분석 및 연구에서 즉시 삭제가 가능함을 알렸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심층 면접으로 이전에 해결되지 않았던 부정적인 경험이 상기될 수 있어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중재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담기관 연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제공할 것임을 안내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녹음됨을 알리고 녹음된 내용은 분석을 위해 전사되어 사용한다는 점에 동의를 받았다. 인터뷰는 1회의 심층 면접이 약 60분 내외로 소요되며, 이후 경우에 따라서 1회의 추가 면접이 요청될 수 있고, 자료 분석 후에는 얻어진 결과를 참여자에게 전달하여 내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인터뷰 혹은 메일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연구 참여자가 의도한 내용에 대해 연구자의 이해 정도를 확인함을 통해 연구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점을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를 막고자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보관할 것이며 자료의 보관 일자는 연구 시작일로부터 연구 종료 후 3년(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녹음파일의 경우 하드 자체에서 삭제 및 휴지통 삭제, 녹음기(핸드폰)에서 모두 영구 삭제됨을 안내하였다. 면접을 마친 후에는 소정의 사례비 3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연구자의 노력

연구자는 청소년 기관의 청소년 상담사로 3년 이상 근무를 한 경력이 있고, 이후에도 다양한 상담 활동을 하며 청소년의 특성과 대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계획 단계에서 윤리 교육을 이수하여 연구의 윤리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론 강의를 수강하고, 학회에 게시된 다양한 학술자료들을 찾아보며 숙지를 하였다.

연구자는 Lincoln과 Guba(1985)의 중립성, 일관성, 진실성, 적용가능성의 기준을 따라 신옥순(2004)의 좋은 질적 연구를 위한 방법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수집한 내용을 충실하게 제시하려 하였고,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객관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였다. 연구자는 전 과정에서 판단중지와 끊임없는 성찰적 태도, 반성적 태도를 지키고자 경계하였고, 연구자는 모든 심층 면접에서 사전 지식을 배제하려 노력하며 현상학적 환원의 태도를 견지하였다. 연구 참여자와 주변 동료, 자문을 통해 의견을 듣고 확인하고 반영하는 작업을 거치며 타당성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목록

연구 참여자들의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게 된 경험에 대한 원자료(Raw Date)를 분석한 결과, 423개의 의미 단위가 도출되었다. 이 중에서 주제에서 벗어난 것들과 중복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이를 요약하여 145개의 의미 단위를 구성했고, 다시 한번 의미 단위들을 추리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총 30개의 중심 의미가 도출되었다. 30개의 중심 의미 단위를 주제 결집 과정을 통해 분석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청소년부모의 양육 결정 경험에 대한 30개의 중심 의미, 10개의 드러난 주제, 4개의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다.

표 3. 중심의미·드러난 주제·본질적 주제 목록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중심 의미
불행한 유년시절을 발버등치며 성장함	평범한 일상을 동경함	부모의 결손, 이별을 경험하며 얼룩져가는 현실을 마주함
		그저 평범한 가정, 평범한 가족, 평범한 삶을 꿈꾸게 됨
	울타리 없는 가정에서 자란 유년시절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함
		방임, 학대, 빈곤 등 돌봄이 부재했던 과거의 처절한 삶
		있으나 마나 한, 남과 다를 바 없었던 나의 형제들
		일탈과 비행으로 물든 나의 학창시절

	의지할 대상을 갈구함	일부 내 주변의 도움으로 삶을 버텨나감 나의 배경과 상처를 닮은 배우자와의 만남
냉담한 세상 속에서 뱃속의 생명을 나의 삶으로 끌어안기	환대받지 못하는 생명의 임신에 세상으로부터 유리된채 고독한 시간을 보냄	냉담하기만 한 주변의 시선과 낙태, 입양의 강요를 당함 낙태와 출산 사이에서 괴로운 줄다리기를 함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리라 다짐하며 출산을 결심함	조그맣고 가여운 생명이 처량하고 애처롭게 느껴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결국 나를 살릴 아이라고 생각함 배우자와 합의 끝에 아이를 낳는 것으로 결정함 간신히 숨을 연명해온 나처럼은 키우지 않을 거라고 다짐함 준비 없이 임신했던 부모처럼 나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함
	불행한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구한 삶의 대물림	경제적 한계와 궁핍함, 냉혹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좌절함 갑자기 부모가 된 어른의 삶이 버겁게 느껴짐 나의 부모 같은 부모는 되기 싫었지만, 부모와 닮은 나를 발견함 배우자와 다툼, 폭행, 이별 등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됨
부모라는 이름의 무게 견디기	나를 지탱하게 하는 자원이 생김	시설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됨 아이 그 자체가 정서적 자원이 되어줌 모델링이 가능한 가까운 주변인이 생김

부모가 되어 다시 바라본 원가족	출산 후 부모에 대한 감정이 재정리되며, 부모가 나를 사랑했음을 알게 됨
	부모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지만, 덤덤히 받아들임 ‘체념에 가까운 수용’
	아이로 인하여 원가족과의 새로운 상호작용이 생김
다부지고 굳센 부모가 되어 감	원가족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여전히 나는 불청객으로 느껴짐
	원가족을 떠나 새로운 ‘나의 가정’에서 심리적 해방감과 안정감을 느낌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마음에 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함
	아이에게 내가 경험하지 못한 평범한 가정을 만들어주고자 함
	어떤 상황에도 아이의 편이 되어주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음

2. 연구 참여자의 삶의 경험

연구 참여자들이 청소년의 나이로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게 된 경험에 대한 의미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출산 전 삶의 의미체험에 대한 흐름과 맥락을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기술하고자 한다.

1. 연구 참여자 A

A는 엄마는 7살 때 이혼하고 떠나며 할머니, 아빠, 남동생과 함께 성장했다. 어린 시절의 가족의 잔상은 폭력적인 아빠, 때리고 욕하는 무서운 아

빠가 크게 남았다. ‘그 집’에서는 늘 혼나고, 맞고, 벌을 받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빠의 폭력을 A와 동생이 견뎌야만 했다. 아빠만 없으면 고통이 끝날 거란 생각에 모두가 잠든 새벽에 A와 그의 동생은 손을 덜덜 떨며 주방으로 가서 흥기를 꺼내기도 했지만, 차마 행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A는 ‘할머니가 없었으면 아빠는 지금 없었다’라고 진술했을 만큼 할머니와 동생과 각별했고, 그나마 유년시절을 견딜 수 있었다. A는 ‘아빠 처럼은 되지 말자’라는 마음을 다짐하며 살았다. 같은 학교 1살 어린 아내와 교체하며 4개월 만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서웠고 두려웠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내 애니까’, ‘내가 책임지고 싶으니까’, ‘내가 떠나면 아빠 처럼 사는 거니까’, ‘내 아이도 같은 경험을 하는 거니까’ 낱기로 결정했지만 여자친구의 부모의 반대로 낙태 수술을 했다. 아픔이 얼마 가지지도 않아 다시 임신을 했고, 현재의 아내와 A는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아서 수술이 안되는 시점까지 걸리지 않고 뱃속에서 몰래 키워냈다. 과거의 삶의 경험에서 A가 느낀 것은 ‘아빠처럼은 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엄마가 떠나고 혼자 남은 아빠의 삶에서 느껴졌던 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분투, 그럼에도 혼자 남았다는 외로움, 양육에 대한 무책임했던 모습들이었다. 그래서 A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부모 두 명이 모두 있게 해주고 싶다고 진술했다.

2. 연구 참여자 B

B는 4살 무렵 엄마가 이혼하고 떠나며 할머니, 아빠와 자신과 비슷한 처지로 남겨진 사촌 언니와 넷이 함께 살았다. 이후 아빠는 여자친구가 생겨 떠났고 작은 집에는 할머니와 B, 사촌 언니만 남겨졌다. 할머니는 늘 가시돋친 말을 내뱉고, B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B의 잘못이 아닌데도 훌쩍 벗겨 집 앞에 내놓는 일도 허다했다고 진술했다. B는 ‘부모 둘 중 그 누구도

나를 책임져주지 않아서' 이런 경험을 하는거라 생각했다. B는 많은 걸 바라지도 않고 그저 안 맞고, 다 같이 밥 먹고, 그냥 평범한 친구들과처럼 평범하게 살기만을 바랐다. 17세, 첫째가 온 것을 알았고, 사귄 지 얼마 안 된 남자친구는 그게 내 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며 등을 돌렸다. B는 켈리곰처럼 생긴 뱃속에 작은 존재가 자신을 닮아 더 애처롭게 느껴졌다고 그때의 상황을 진술했다. B는 엄마, 아빠도 스무 살에 자신을 낳았으니 이 아이도 이렇게 일찍 온 건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의 엄마, 아빠 같은 부모는 진짜 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B는 부모처럼 책임감 없이 아이를 버리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는 미혼모시설로 B를 등 떠밀어 보내버렸고 힘도 없고, 돈 없는 B는 그곳에서 우울증으로 하루하루 죽고 싶어서 약을 먹고 자해를 했지만 해결되는 건 없었다고 진술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둘째를 낳았지만 폭력과 폭언, 잦은 외박과 여자문제들은 B를 비참하게 만들어 다시 한번 몸에 상처를 내기를 반복하였다. 어떻게든 아이들만큼은 평범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가정을 지키고자 버텼는데 세상은 B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아이를 책임져주고 싶어 굴레에서 살아내고 있다.

3. 연구 참여자 C

C는 아빠, 엄마, 동생 3명이 있는 6인 가정에서 자랐다. 아빠는 유난히 키도 덩치도 크고 힘이 션고, C는 별별 이유로 '그 몸으로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맞았다고 진술했다. 같은 반 친구가 '학교 끝나고 화장품 보러 갈래?' 하는 말이 너무 달콤했지만, 학교 끝나고 동생들을 봐야 했다. 반항은커녕 C는 아빠가 너무 무서웠고 아빠 말이 곧 법이었다. '오늘은 내가 뭘로 혼날까' 아빠가 야간 일이 끝나고 새벽에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다. '더 때려. 정신 못 차리네' 엄마의 뽀족하게 부추기는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학교 일진 선배들’처럼 아빠 엄마는 집에서 일진이었고, 동생들은 펍 하면 비열하게 이른다고 헐박하고, 이르는 날에는 맞게 되어 집에서는 C가 마음 둘 곳이 없었다. 할머니와 고모들은 C를 ‘아픈 새끼손가락’으로 불렀고, 친구들은 C의 부모가 ‘계모인지 계부인지’를 물었다.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가 되어 쉼터에서 살기도 했지만, 그곳도 아빠의 손바닥 안처럼 느껴졌다. 17살에 C는 도망쳤고, 그곳에서 가장 먼 곳, 아빠가 못 찾는 곳, 오지 못하는 곳으로 떠났다. 인터넷으로 알게 된 오빠들을 만나서 밤에는 술집에 가서 물건을 팔았다. 어린 나이에 타지에서 힘들고 외롭고 무서운 경험들도 많았지만, C는 폭력에서 벗어남 하나는 얻을 수 있었다. 그곳에서 쓰레기도 바닥에 못 버리는 착한 사람을 만나면서 3개월 만에 첫째가 생겼다. 가엽고 작은 생명을 지울 수 없었다. ‘생명이고 내 자식이니까’, ‘어른들의 실수로 아이를 희생할 수 없기에’, ‘우리 부모는 항상 무서운 엄마 아빠였지만, 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출산을 결심하였다.

4. 연구 참여자 D

D는 부모의 이혼 전에는 아빠, 엄마, 언니와 함께 살았다. 감당 못할 빚을 떠안게 되면서 아빠와 엄마는 이혼했고, 그렇게 엄마는 이일 저일 하느라 늘 바빴다.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D는 중3까지도 발달이 느렸다.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어 말이 느렸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느린 아이’가 되었다. 힘들다는 말도 해보지도 아프다는 말을 해보지도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D는 항상 마음속으로 늘 불안함에 쫓기면서 살았다. D의 언니는 잘 났고, 공부도 잘했고, 중국 유학도 갔다. 그런 언니가 부럽기도, 이기적으로 다 누렸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남들과 비교해서 결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미용 기술을 배웠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말을 못 알아듣고

느리다고 무시당했다. 눈치로라도 알아들어야 했으니 눈치가 유독 발달한 탓에 자신을 싫어하고 무시하는 눈치를 특히나 잘 알아차리게 되었다. 한 살 어린 남편을 만났고, 이 남자가 괜찮은 남자인지 아닌지 제대로 파악도 못했는데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다. 낙태하러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작은 녀석이 팔, 다리가 다 있는 모습에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D는 자신의 부모처럼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아빠는 부재했고, 엄마는 바빴고, 언니도 제 살기 바빴기에 늘 혼자였다. 불안함에 떨면서 방황하던 나를 끄집어내 준 건 오히려 아이라고 느꼈다. 가정을 꾸려 아이를 낳고 많은 것들이 변했고 목표도 생겼다. 나에게서 ‘복덩이’가 찾아온 것이다.

5. 연구 참여자 E

E는 부모님이 이혼하기 전에는 아빠, 엄마, 동생 2명과 5인 가정에서 살았다. 어릴 적을 돌아보면 E에게는 추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남들은 보면 크리스마스에 가족끼리 놀러도 가고 추석이나 설날에 가족도 모이던데 우리 가족은 혼한 행사 치레도 없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 쫓기고 빚에 시달렸다. E의 가족은 쌀 한 포대 살 돈이 없어서 라면 3개로 다섯 식구가 나눠 먹었기도 했고, 이후에는 라면마저도 외상값에 달아졌다. 아빠는 빚 갚느라 12시간을 택시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에어컨 기사로, 용역 인력 사무소에 일 구하러 나갔다. 엄마는 점차 기력이 없어지고 몸에서 이상 신호가 왔다. 가슴에 문제가 생긴 것을 진작 느꼈지만 E의 집은 병원비가 없었고, E가 성장하듯 엄마의 암도 점점 자라며 유방암 말기가 되었다.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고 엄마는 그렇게 요양병원에, 아빠와는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쯤, 아내를 만났다. 4개월 만에 아이가 생긴 것을 알았고 만감이 교차했다. 기쁘기도, 슬프기도, 눈물이 나기도, 두렵기도, 책임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부모님이 E를 가졌을 때도 찢어지게 가난했다.

엄마는 E를 지우기 위해 낙태약을 처방받아 아빠가 볼 수 있는 서랍장 위에 올려두었고, 아빠는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했다고 들었다. 아빠의 무언의 허락은 E에게 큰 충격이자 상처로 남았다.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났는데, 내 아이를 지울 수 없지. 나만큼은 달라야지’하며 B의 자식이 환영은 못 받더라도 자신처럼 부정당하지 않기를 바랐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E는 자신의 대에서 ‘가난에서의 대물림을 끊겠다’라는 목표가 생겼다.

6. 연구 참여자 F

F는 3살 때 엄마가 이혼하며 떠났고, 할머니, 아빠, 삼촌, 남동생과 살았다.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갔다가 주말에 와서 할머니의 밥일을 돕고 또 떠나기 일쑤였다. 할머니는 운동하는 F보다 공부하는 동생을 예뻐하셨고 차별도, 방치도 너무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아빠는 바빠서 전화해도 못 받는 날이 많았고, 본인의 삶을 살아내기에도 고단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게 맞나?’ 다른 친구들은 가족한테 고민도 얘기하는데 엄마는 없고, 아빠는 바쁘고, 할머니는 차별한다는 생각에 F는 가정에서 이해받지도, 수용 받지도 못한다는 마음이 들며 어긋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자퇴를 하고 가출하였고 타지에서 누군가를 때리게 되어서 재판을 받고 시설에 들어가서 3년을 지냈다. 이후 비슷한 아픔이 있는 남편을 만나 이해받는 경험을 했다. 사귄 지 4개월 정도 되었을 때 아이가 생긴 것을 알았고 가족의 반대가 심해 가족과 연을 끊었다. F는 부모의 이혼, 방치를 경험하고 ‘부모 처럼은 되지 말자’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F는 사랑을 받지 못했고 갖고 싶은 것도 가질 수 없었기에 아이를 낳아서 F가 받지 못한 것을 해주고 싶었다. 가진 게 없어 당장은 돈 빌리면서 모텔을 전전했지만 그래도 아이를 만나게 되는 것이 기대되고 행복했고, 자신이 가장 ‘잘한 일’이라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아이에게 F는 ‘그냥 나를 사랑해 주는 엄마’라

고 불리고 싶고, F가 받지 못한 사랑을 아이는 느끼게 해주고 싶다.

7. 연구 참여자 G

G의 엄마, 아빠는 각자 다른 가정을 일구고 17살에 이복, 이부 오빠 언니들을 낳고 살았다고 했다. 엄마는 폭력적인 전 남편에게서 도망쳐서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동갑의 아빠를 만났고, 그렇게 재혼해서 G가 태어났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는 중학교 때 이혼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 새아빠가 생김을 경험했다. 친아빠와 살 때는 G한테 관심이 없었고, 일과 돈에만 관심을 두어 혼자 방치됨을 느꼈다. 그 삶에서 벗어나 엄마랑 새아빠랑 살게 되었는데, 엄마는 G에게 너무 관심이 많고 모든 것을 엄마의 통제 안에 두었기에 힘들게 느껴졌다. 17살에 4개월 사귀는 현재의 남편과 아이가 생겨 버렸고, 엄마는 한번 안된다면 설득이란 없기에 엄마 손에 이끌려 강제로 수술하게 되었다. 두 달 만에 또 아이가 생겼고 이번에는 그냥 지울 수 없었다. G는 아이가 좋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기보다 가정을 일궈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더 나은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혼을 하며 엄마와 아빠는 G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했겠지만, 자신은 아빠랑 살 때도 엄마가 필요한 적이 있었고, 엄마랑 살 때도 아빠가 필요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어릴 땐 친구들이 가족과 외식하고 왔다고 하면 부러워하기도 했다. 자신은 이러한 결핍 없이 아이를 키우고 싶었고, 잘 키워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부모로 아이들을 잘 키워서 살아가고 싶다.

8. 연구 참여자 H

H는 아빠, 새엄마, 남동생과 함께 넷이 살았다. 아빠는 H가 4살쯤 엄마와 이혼해서 1년 뒤 새엄마를 데려왔기에 엄마가 새엄마인지 몰랐고, 그저

자신에게 나쁜 엄마라고만 생각했다. 새엄마는 딸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아빠랑 재혼했다. 아빠는 돈을 벌어서 새엄마에게 생활비를 주면 그쪽 딸들에게 모조리 보내어 H와 동생은 학교에서 급식비도 못 내고 우유비조차 못 냈다고 진술했다. ‘나한테 엄마라고 하지 말아 소름 끼친다’라는 말이 그땐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했다. 8살 때 설거지를 하다가 밥그릇 하나 깨먹고 매로 죽기 직전까지 맞았고, 그 이후로도 분이 안 풀리는 날에 옥상에 끌고 올라가서 계단에서 나를 밀기도 했다. 10살 때 용돈 천 원을 써버려서 아빠한테 머리가 찢어지도록 무자비하게 맞았다. ‘친엄마에게 가버려’ 하며 전화번호를 줘서 그 길로 나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내 엄마냐고 물었고, 그날에서야 H는 친엄마가 따로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과거 사촌 오빠한테 어릴 때부터 성폭행, 강간을 당해왔던 사실이 밝혀지며 ‘지금까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지. 왜 이제 와서 애 앞길을 막냐’는 말을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들었다. 이 세상은 H에게만 너무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느껴졌다. 자해하고 자살시도를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게 일상이었다. 아픔을 이해해 주는 남자를 만났고 사귄 지 얼마 안 되어 아기가 생겼음을 알게 되었다. H는 어릴 적부터 일찍 결혼해서 애를 낳고 행복하고 평범하게 사는 게 소원이었다. 고되기만 했던 과거의 삶을 미래의 삶으로 보상받고 싶기도 했다. H는 나와 같은 경험은 나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싶다. 지금의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남편과 함께 사는 삶이 너무 소중하다.

9. 연구 참여자 I

I는 부모의 이혼 전 아빠, 엄마, 언니와 함께 살았다. 초등학교 4학년 I가 등교한 시간에 엄마는 짐을 챙겨 홀랑 떠나버렸고, I는 이별이 뭔지도 모른 채 이별 당했다. 어느 날 생겨버린 새엄마도 싫었다. 새엄마의 들쭉날쭉

한 성격도, 아빠 없을 때 짜증 부리는 것도, 숨소리도 싫었다고 진술했다. ‘그 집’이 불편했다. 친구들과 있는 게 마음이 더 편했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고등학교 1학년에 가출을 해서 자취를 시작했다. 이후 I와 닮은 가정의 아픔이 있는 남자친구를 만났다. 남자친구는 꽃을 사주기도, 초콜릿을 사주기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I에게 베풀어주는 모습이 좋았다. 만났지 3달 만에 아이가 생겼고, 자신의 뱃속에 자신보다 더 어린 존재를 보고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내가 아이를 지운다면 이 아이는 나한테 그냥 버려지는 거고, ‘좀 나라도 그런 사람이 안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친구는 I를 다독이며 책임질 테니 잘 키우자고 미래를 약속했지만, 현재는 구치소에 있어 혼자 양육하고 있다. I는 과거에 엄마가 필요한 시기에 엄마가 없었고, 아빠는 바빴다. 학교에서 친구들과끼리 엄마랑 어딜 갔네, 저길 갔네, 그 주제에는 I가 깰 수가 없어 그 자리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I가 원하는 건 그저 평범한 삶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게 자신에게는 그렇게나 어렵나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남과 다른 삶이 얼마나 상처인지 알기에 아이에게는 좋은 것만 주고 싶다.

10. 연구 참여자

J는 부모의 이혼 전 아빠, 엄마, 남동생과 외국에서 함께 살았다. 초등학교 4학년쯤 한국으로 와서 19살이 많은 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언니네 집에 맡겨져 언니, 형부, 남동생, 조카 두 명과 함께 살았다. J는 그곳이 싫었다. 언니네 가게를 봐야 하는 것도, 조카를 돌봐야 하는 것도, 집안일을 해야 하는 것도, 하녀처럼, 꼭두각시 인형처럼 굴어야 하는 것도 싫었다. 벗어나고 싶어서 가출하면 형부한테 잡혀 오고 맞는 게 반복이었다. 아무리 몸에 칼을 대고 상처를 내도 한 번만 더 자해하면 정신병원에 집어넣겠다며 가족은 모두 J를 한심하게 쳐다봤다. 중학교 2학년부턴 그 집을

탈출해 엄마랑 살게 되었지만 엄마는 맨날 동호회 사람들과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와 J는 방치되었고 그곳에서조차 혼자였다. 17살, 듬직한 남편을 만나 임신했다. J는 평생 내 편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고,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이는 J를 좋은 길을 가게 하려고 길을 열어준,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들어준 기회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J가 임신한 걸 알게 된 언니는 아빠가 그 당시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이를 아빠 자식으로 보내라고 했고, 이 계기로 큰 상처를 받아 원가족과는 모두 다 연을 끊었다. J는 자신의 부모와 정반대인 부모가 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엄마 아빠처럼은 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은 ‘나를 외면한 걸 후회하게 만들어야지’라는 마음으로 변하기도 했다. 당시 돈도 없었고, 남편도 직장을 잃었고, 믿을 구석 하나 없이, 모텔을 찾아다니며 한 끼에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고 회상한다. J는 여전히 평범해지고 싶고 아이들에게도 평범한 가정을 이뤄주고 싶다. 자신이 생각하는 평범한 가정은 다 같이 밥 먹고, 다 같이 재미있게 얘기하고, 여행 가고, 외식하고 소소한 것들이다.

3. 상황적 구조기술(참여자의 개별적 상황)

본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게 된 경험에 대해 개별적 경험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각 개인의 삶을 살아온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상황적 구조 기술로 제시하고자 한다.

1) 불행한 유년시절을발버둥치며 성장함

가. 평범한 일상을 동경함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불안정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고 진술했다. 부모의 잦은 다툼, 부모의 이혼으로 탈 전형화된 가족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부모의 결혼, 이별을 경험하며 얼룩져가는 현실을 마주하고, 부모의 재혼으로 인하여 새로운 가족 계모, 계부, 이복형제가 생기며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부모에게 부적응, 불안감,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한 발단이 되고 있었다.

제가 4살 때 이혼했고 지금은 둘 다 재혼했어요. 처음엔 아빠도 같이 살다가 중3 때부터 할머니랑 사촌 언니랑만 살게 되었고요. 아빠는 다른데 가서 재혼하고. (사례B)

저희 엄마는 아빠랑 이혼하고 지금 새아빠랑 만난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랑 아빠가 만나기 전에 서로 각자 또 원래 가정이 있었어요. 그니까 재혼해서 저를 낳은 거죠. 그래서 원래 가정에서 낳은 언니, 오빠들도 있고. (사례G)

이들은 자신의 바람과 관계없이 양육권을 가진 한부모 가정에서 살게 되며 나머지 부모에 대한 소식을 아예 모르거나, 친부모와의 분리 거주로 인해 조부모에게 맡겨지는 등 원가족의 구조적, 심리적 결손 상태에서 성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촌 언니 부모님도 이혼해서 사촌 언니랑 저랑 할머니랑 같이 산 거죠. 그냥 아빠는 생활비만 주고요. 전 할머니랑도 사이가 안 좋았고 엄마 아빠랑도 그렇게 깊지는 않죠. (사례B)

제가 3살 때쯤에 이혼하셨고 아빠는 지금 OO에 계세요. 할머니, 삼촌, 동생만 같이 살았어요. 엄마는 아프셔서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일 때문에 계속 OO에 있으니까 주말 빼고 만날 수 없었어요. (사례F)

어릴 때 엄마 기억은 아빠랑 셋이 밥 먹었던 거 말고는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 가 있는 시간에 짐 싸 들고 나갔어요. 가장 필요한 시기에 엄마는 없었고, 외로웠고. (사례I)

엄마는 집에 없었어요. 놀 거 다 놓고 사람들 만나고. 엄마랑 살았을 때는 무조건 새벽 5시면은 열마가 나오고 새벽에 들어와요. 전 언니네 집으로 보내져서 사실상 언니가 거의 주 양육자였죠. (사례J)

연구 참여자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이혼, 재혼 등을 겪으며 남들과 다름을 받아들여야 했다고 진술했다. 평범하게 사는 친구들을 부러워했고 가족끼리 다 같이 식사하고 일상의 저녁을 보내는 것과 같은 평범한 가족, 평범한 삶을 꿈꾸었다고 말했다. 남들에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이들에게는

갈망하는 삶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항상 그냥 다른 평범한 친구들 집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가족 다 같이 그냥 밥 먹고, 그냥 평범한 거. (사례B)

같이 밥을 못 먹으니까 그냥 친구들이 외식한다 그런 소리 들으면 나도 엄마 아빠랑 밥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사례G)

친구들 보면 부러웠죠.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엄마랑 어디 갔네 저기 갔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 순간에는 말을 안 하다가 그 주제가 끝나면 이제 다시 얘기해요. 제가 원하는 건 그냥 평범한 거였어요.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좀 어렵나 싶어요. (사례I)

친구 부모님이 친구한테 되게 잘해 주셨거든요. 밥도 해주시고 같이 밥 먹고 오라고 용돈 주거나. ‘아 저게 그냥 그냥 평범한 가정이구나’ (사례J)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 등 부정적 정서를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부모는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았으며, 방치했고, 더 나아가 몇몇은 분풀이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분노, 원망, 외로움, 슬픔, 혼란, 무기력, 변화할 수 없는 현실의 한계를 경험했다고 진술했다.

아빠 폭력이 너무 심했으니까 새벽에 아빠 죽이려고 저랑 동생이 방에 주방으로 갔어요. 칼을 잡고 떨면서 들었는데 결국 하지는 못했어요. (사례A)

무서웠죠. 늘 가슴이 두근두근하고요. 저는 아빠 때문에 방에 숨어 있거나

조용히 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살면서 단 하루도 조마조마한 가슴 두근거림이 없던 날이 없었어요. (사례C)

그냥 힘들었어요.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주변에 기대거나 의지할 게 없었으니까요. 저는 엄마는 없고 아빠도 멀리 살고 있고 할머니는 동생한테만 차별하니까. (사례F)

새엄마가 저보고 너는 네 친엄마 닮아가지고 되게 짜증 난다고. 꿀 보기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친엄마를 되게 원망을 많이 했죠. 나를 왜 날아가지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날지 말지. 어렸을 때 아무도 그 빈자리를 메꿔주지 못했죠. (사례H)

나. 울타리 없는 가정에서 자란 유년시절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 또는 주 양육자로부터 정서적 방임 또는 신체적 학대를 경험이 있었음을 고백했다. 이는 방치되거나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성추행 등 개개인에 따라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원가족 내에 의지할 지지체계나 버팀목이 될만한 구성원이 없었고, 이러한 경험은 아직까지도 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로 남게 되었다.

아빠는 이혼하고 스트레스 같은 걸 저희한테 심하게 풀었어요. 그때 너무 어리니까 저랑 동생은 왜 맞는지도 몰랐고. 밥 먹다가, TV 보다가, 그릇 소리 나면 맞고, 손으로, 효자손으로, 아무거나 잡히는 걸로 다 맞고. (사례A)

그날도 엄청 맞고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제가 맞고 온 걸 알고 경찰에 가정

폭력 신고를 또 했거든요. 그렇게 또 쉼터에서 살게 되었는데 아빠가 찾아와서는 머리를 질질 끌고 가서 발로 제 얼굴 차고 밟고. 던지고 패고. (사례C)

원래 효자손, 파리채로 맞다가 다 부러진 거죠. 두꺼운 나무막대를 주워서 테이프 감은 걸 매로 썼죠. 매로 때리다가 분이 안 풀렸는지 비 오는 옥상으로 절 끌고 올라가서 저를 밀어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사례H)

또한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아 빈곤을 겪기도 했다. 부모는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거나,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 재혼하여 다른 가정이 있어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내기도 했다.

저 태어나면서 회사가 부도가 났죠. 외가 쪽도 아빠한테 돈을 빌리고 친가 쪽도 아빠한테 돈을 빌렸거든요. 보증도 잘못 서 가지고 어려웠죠. (사례D)

계속 빚 때문에 시달렸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거 갚으시느라고 일만 하셨어요. 12시간 택시, 에어컨 기사, 일용직. 쌀 한 포대 살 돈도 없어가지고 라면 3개 외상 달고 다섯 식구가 먹고. (사례E)

새엄마가 돈을 빼돌려서 저랑 동생은 학교에서 급식비도 못 냈거든요. 우유 비조차 못 내 가지고 학교에서 전화하고 그랬었어요. (사례H)

몇몇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있으나 마나, 남과 다를 바 없었던 형제가 있다고 진술했다. 형제는 자신과 달리 사랑받는 대상이라 부러움을 느끼기도 했고, 자신에게만 유독 부모가 차별을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동생들 때문에 좀 많이 혼났어요. 남동생이 ‘누나가 이거 했어’ 거짓말들을 지어내고. 남동생 때문에 더 맞고 혼났던 것 같아요. 지는 어차피 안 혼난다고 으스대고. (사례C)

제 동생은 되게 우쭐거렸어요. 내가 어차피 잘못해도 누나가 혼나는 거고. 내가 잘못해도 엄마는 날 안 혼내. 내가 잘못해도. 어차피 내가 잘못해 봤자 누나가 혼하는데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해? 이런 거죠. (사례H)

이러한 힘듦을 경험하며 무기력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몇몇 이들에게는 일탈과 비행으로 물들어진 학창 시절로 기억되기도 했다. 가출이나 자퇴를 하기도 하였고, 심한 경우 반복성 자해, 자살시도를 하며 정신병원 입원, 쉼터, 소년원 등에 입소하기도 했다.

폭행을 버티다 버티다가 너무 힘들면 쉼터로 스스로 갔는데 아빠가 하도 와서 난동을 피우니까 쉼터에서도 미안하다고 못 받아주겠다고. 이후 개인적으로 집을 나오기 시작했죠. 아빠가 찾지 못하고 오지 못하는 곳으로 멀리 진짜 멀리. (사례C)

고1 때 자퇴하고 집 나와서 OO 지역에서 애 때리는 사고를 쳤어요. 6호 처분을 받고 시설 들어가서 2년 살다가 나온 거죠. (사례F)

사촌 오빠 성폭행 건으로 재판 다니느라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되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여고로 전학 갔는데 못 어울리고. 또 전학 가고. 또 다시 전학 가고. 자해하고. 자퇴하고. 정신병원 입원하고. (사례H)

언니네랑 같이 살면서 중2부터는 계속 가출했었죠. 몸에 칼을 대고 자해를 하고 그런 것도 좀 많았죠. 한 번만 더 자해하면 정신병원 보낸다 하고. 언니네는 감옥 같았어요. 가출하면 잡혀 와서 맞고 또 나가고. (사례J)

다. 의지할 대상을 갈구함

그래도 연구 참여자들은 일부 자신의 주변의 도움으로 삶을 버텨나갈 수 있었다. 이를테면 친구들의 정서적 지지가 있었거나, 담임 선생님, 위클래스 선생님의 가정폭력 신고로 위기에서 벗어난 경험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주변의 도움을 통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가출해서 아빠가 찾으면 친구들은 자기가 혼나게 되더라도 제가 하도 맞고 그러니까. 다 아니까 저 데리고 나오거나 숨겨주고 그랬죠. (사례C)

새엄마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두 번 당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위클래스 선생님이 신고하셨고 중3 때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아서 그때 친엄마를 찾았죠. (사례H)

친구들이 있어서 견뎠어요. 아빠도 무뚝뚝하고 성격이 진짜 별로고 새엄마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자체가 싫었었어요. 그냥 전 애들이랑 같이 있는 게 더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사례I)

몇몇 참여자들에게는 의지할 가족 구성원도 존재했다. 그들은 대부분 형제나 조부모였고,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부족한 따뜻함을 그 대상에게서나마 채울 수 있었다.

아빠가 3~4분 내로 밥 다 못 먹으면 때려죽이겠다고 할 때마다 할머니한테 몰래 밥을 덜었어요. 할머니는 억지로 계속 먹어주셨어요. 힘들어도 저는 할머니랑 동생 때문에 집 나간 적 없어요. (사례A)

외로워서 제가 할머니한테 속풀이를 했어요. 할머니가 가족 중에 저를 제일 오냐오냐했었거든요. 할머니가 제일 좋았어요.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한테 하는 말이 ‘아픈 새끼손가락’ 이래요. (사례C)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배경과 상처를 닮은 배우자와 만나게 되었다. 배우자도 외로운 성장기를 보냈고, 자신과 닮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 더욱 서로 의지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자신 또한 사랑받고 이해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느꼈다.

저는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엄마가 없었고, 케어도 없었고. 아내도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남들은 두 쪽 다 있는 부모가 저흰 한쪽이 없었으니까. 닮은 점이 있었죠. (사례A)

남편도 이혼 가정에 유복한 환경에 크지 못했어요. 자기도 외로웠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남편도 너무 외롭게 자랐어요. 거의 혼자 살았죠. 그래서 남편도 자퇴하고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한 거고. 저랑 많이 닮았어요. (사례D)

남자친구도 가족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어머니는 재혼하시고 어릴 때 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남자친구도 유년 시절에는 조금 힘들게 지냈어요. 그때 저에겐 정말 의지가 되었죠. (사례I)

제가 외롭게 자라서 등직하고 많이 챙겨주는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남편도 저랑 거의 비슷해요. 아버님 사별하기 전까지 어머니랑 거의 이혼상태. 배경이 비슷하다 보니 위안이 됐었죠. (사례J)

연구 참여자들은 출산 전의 삶에서 부모의 이혼, 재혼, 이별 등 가정의 붕괴로 인해 고통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에 조부모, 가족 등에 맡겨져 성장하기도 하였고, 방임이나 학대, 빈곤한 삶 등의 경험을 진술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처를 위로받고자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었고, 그것이 현재의 배우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출산 전의 삶의 경험에서 본질적 주제가 나타났고, 이는 ‘불행한 유년시절을 발버둥치며 성장함’으로 구성되었다.

2) 냉담한 세상 속에서 뱃속의 생명을 나의 삶으로 끌어안기

가. 환대받지 못하는 생명의 임신에 세상으로부터 유리된 채 고독한 시간을 보냄

연구 참여자들은 교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입덧, 월경 중단, 신체적 변화 등으로 임신 사실을 인지했다. 갑작스러운 임신 사실에 ‘X 됐다’, ‘큰일 났다’, ‘놀랍다’, ‘무섭다’, ‘막막하다’ 등의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원가족과 배우자의 부모는 출산을 반대했고, 낙태 또는 입양 보내기를 권유하며 그로 인해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다고 진술했다. 냉담한 주변의 시선과 낙태, 입양의 강요를 받고 있다는 현실이 서럽게 느껴졌다.

제가 고3, 아내 고2였으니까 아빠도 아기는 지우래요. 저는 진짜 그건 아닌 거예요. 장모님은 뿔이 머리끝까지 난 거죠. 임신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인정하지만 저희는 낳겠다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사례A)

엄마가 임신을 알고 미친년 아니냐고 지우라고 했죠. 전 절대 못 지운다고 그랬는데 새아빠는 너네가 짐승 새끼도 아니고 애가 생긴다고 다 낳냐고 하더라고요. (사례H)

친구들은 몇몇 반은 욕하는 애들도 있었고. 가족은 완전 단호하게 그냥 지우라고 하더니 말을 바꾸더라고요. 새엄마가 중국인이라 아빠랑 당시에 결혼을 하려면 둘 사이에 자식이 있어야 했어요. 아기가 필요하니까 아빠랑 새엄마랑 자식으로 등록해서 아빠 재혼하게 아빠 네로 아기 보내라고. (사례J)

혼돈의 상황에서 이들은 낙태와 출산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경험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과 배우자는 나이도 어리고, 부모로서 아이를 키울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가족의 극구 반대로 도움을 청할 수도 없기에 어쩔 줄 몰라 갈등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뱃속의 아기에게 죄책감이 들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자연히 그냥 아기가 없어졌으면’ 하며 배를 때리며 유산을 기대하거나, 낙태 수술검사를 예약하는 등의 시도는 했으나,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낙태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진짜 혼자서 감당 안 되고. 남자친구도 떠나고. 주먹으로 막 배도 때려보고 일부러 옆드려 자고 그랬거든요. 낙태 수술 병원 가서 마지막으로 초음파를 봤는데 아기가 전보다 더 커 있는 거예요. 막 손가락 빨고 있고.. 그래서 지우러 온 거 아니라고 하고 그냥 박차고 나왔죠. (사례B)

낙태하려고 검사까지 다 받았거든요. 낙태하러 간다는 사람들을 초음파 보면 ‘어 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다는 거. 저도 그랬어요. 보면 너무 애가 잘 자란 거예요. 너한테 난 이런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례D)

처음에는 아기를 지울 생각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심장 소리를 들려주시잖아요. 그걸 듣고 나서 아기를 못 지웠어요. (사례I)

4~5개월 때 간 거예요. 그때 병원 가니 이미 손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초음파를 보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그 모습이요. 제가 아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 새끼면 얼마나 더 예쁘겠어요. (사례G)

나.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리라 다짐하며 출산을 결심함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이 된 것에 아기의 잘못은 없다는 생각을 했고, 점점 뱃속의 아기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느껴지며 미안함, 측은함, 신기함, 신비함, 경이로움, 미안함 등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귀에서 심장 소리 계속 들리고, 막 그냥 눈 감고 있어도 계속 아기 형체가 계속 아른거려더라고요. 진짜 지우는 건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아기가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례B)

그 애도 생명이고 저랑 남편의 즐거움 때문에 생명을 없앤다는 게 너무 끔찍했어요. 아기집도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없애요. (사례C)

엄마랑 아빠가 절 임신했을 때 찢어지게 가난해서 약 먹고 저를 지우려고 했

어요. 아빠도 안 말리고 그냥 무언의 허락을 했다고 해서 충격받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났는데 이 작은 생명을 똑같이 부정하고 지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례E)

나도 어린데 내 뱃 속 안에 더 어린 아이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초음파 보면 애기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조금 뭔가.. 이상하다 해야 되나.. 기분이요. 그런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신기했어요. (사례I)

몇몇은 어쩌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전의 삶은 서럽고 외로웠으며 고단했고, 방황하는 불안한 삶이었기에 평범함을 늘 갈망해왔음을 진술했다. 그래서 아이가 그동안의 삶에서 이뤄내지 못했던 ‘평범한 삶’을 자신에게 가져다줄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기대감도 들었다.

당시에 고등학생 때 되게 방황할 때였어요. 맨날 외박하고. 오히려 첫째를 지웠으면 저는 아직까지도 방황했을 거예요. 당시에 첫째가 와준 게 고마웠어요. 저에게 와준 게 분명 의미가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사례B)

그때 엄청 방황했고 맨날 불안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목표가 생기면서 불안함도 사라지고 안정적으로 변했죠. 첫째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 방황했을 거예요. 복덩이예요. 사람 하나 살렸다 싶어요. (사례D)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어쨌든 제 옆에 가족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좋았죠. 저는 엄마 없이 아빠의 관심 없이 방황하면서 살다가 아이를 갖고 가정을 만든다는 게 오히려 안정적으로 느껴졌으니까요. (사례F)

제가 좋은 길을 가게 하려고 아기가 길을 만들어 준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선택한 거죠. 가정을 꾸리면 내가 가장이 되고 평범하게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선택하라고 해도 똑같이 선택했을 거예요. (사례J)

연구 참여자들은 배우자와 합의 끝에 아이를 낳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당시에 자신도, 배우자도 준비된 것 하나 없는 청소년이었지만 출산하여 양육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배우자와 함께 뱃속의 아이를 잘 키워내리라 다짐을 하며 출산을 준비했다.

둘째 임신했을 때 저한테는 이미 첫째가 있었고 첫째는 남편 애가 아니다 보니 둘째를 어떻게 할지 선택권을 줬어요. 남편은 바로 낳자고 했죠. 자기가 첫째까지 다 책임진다고. (사례B)

남편이 갑자기 ‘이 애 낳자’ 이러는 거예요. 낳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카드빚이 천만 원 있었는데. 결국 낳기로 했죠. (사례D)

남편한테 임신 사실 알려주고 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자기 너무 행복하다고 ‘이건 무조건 낳아야지’ 해가지고 그때 느꼈거든요. ‘이 사람이구나. 잘 키워야겠다’ (사례J)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나의 부모 같은 부모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모는 자신에게 제대로 된 양육을 하지 않았기에 부모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다. 과거의 삶에서 시작된 부모에 대한 원망은 자신이 부모가 된 역상황에서 아이를 잘 키워내겠다고 다짐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아이가 절

대로 겪지 않게 하겠다고 마음먹기도 하였다. 새로운 가정과 자녀를 통하여 누리지 못했던 행복감, 안정감, 평범함, 평안함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우리 애들만큼은요. 저희랑 아내처럼 얼마나 아빠 없는 애로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부모님은 그냥 아빠처럼은 되지 말자. (사례A)

‘우리 엄마, 아빠 같은 부모는 진짜 되지 말아야지’했어요. 제가 성인 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 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 같지 않은 부모님,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사례B)

전 제 새끼는 엄마 아빠처럼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통제가 너무 강했고 폭력적이었으니까. 부모처럼은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사례C)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나서 사실 좀 그랬어요. 애를 낳으면 내 애한테는 그런 경험 안 겪게 대물림하지 말자 했어요. 어렸을 때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살게 하지 말자. 이혼하는 것도 분명 아이의 잘못은 아닌데 아이가 힘들어요. 내 애한테만큼은 그런 상처를 주지 말자 싶었어요. (사례E)

저는 ‘부모처럼은 되지 말자’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못 받은 것을 아기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사랑이든 뭐든 저희 부모님처럼은 안 하고 싶었죠. (사례F)

제 꿈이 나중에 일찍 결혼해서 애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요. 가정폭력도 심했고 부모는 끝까지 절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내 아이는 되게 행복하게 해주고 이런 일을 안 겪게 할 거라고 다짐하고 생각을 했어요. (사례H)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처럼 자신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일부 연구 참여자 부모는 10대, 20대 초반에 임신 또는 출산의 경험이 있었는데 10사례 중 7명의 연구 참여자 부모는 자신과 동일하게 청소년의 나이로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부모였다. 유사한 상황에 어린 나이로 출산했던 부모보다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출산을 결정한 후 가족에게 일방적 통보를 하거나, 몇몇은 가족과 단절한 채로 부모 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아빠 유전이죠. 아빠도 저희 버릴 수 있었는데 안 버린 거고. 당시에 저희 부모님도 어린 나이에 임신했거든요. 그니까 저도 키워야겠다 이랬던 거죠. 알바든 노가다판이든 돈 벌러 죽어라 했죠. (사례A)

저희 아빠가 19살에 엄마 21살에 때 저를 가졌잖아요. 작은고모도 18살인가에 사촌 언니 낳았고 할머니도 되게 젊거든요. 그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망가져도 애는 내가 진짜 안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례B)

엄마 아빠도 혼전 임신이었거든요. 비슷하게 19살, 20살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절 가졌죠. 저랑 상황이 비슷했어서 잘 키우고 싶었어요. (사례C)

저희 엄마도 저희 이부 언니를 17살에 낳았고 아빠도 원래 가정에서 이복 오빠를 그쯤 낳으셨으니까. 저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더 잘 할 것 같았고. (사례G)

이처럼 출산 결정 시기의 삶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 이후 가족과 주변의 냉담한 반응을 감당해야 했다. 또한 ‘낳을 수 있을까’,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밤을 지새우기도 하며 출산과 낙태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했다. 그러나 불현듯 아이로 인해 이전 삶에서는 경험할 수 없던 평범한 삶을 이룰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기대감이 생겼고, 자신의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되어 아이에게 평범한 삶을 살게 해주리라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 본질적 주제가 나타났고, ‘냉담한 세상 속에서 뱃속의 생명을 나의 삶으로 끌어안기’로 구성되었다.

3) 불행한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구한 삶의 대물림

가. 출산 후 맞닥뜨린 고단한 현실의 벽

연구 참여자들은 출산 후 돈, 집, 빚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한계를 느꼈고, 냉혹한 현실 앞에 좌절을 경험했다고 진술했다. 사전 준비나 주변의 도움닫기 없이 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 현실이 벽차고 힘들게 느껴졌다.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에 연구 참여자들은 집을 구하지 못해 모텔을 전전하거나, PC방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고, 돈이 없어도 끼니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상황을 겪기도 했다.

금전적으로도 많이 딸리고, 경제적 여유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도움 받을 만한 곳도 없었고. 심지어 전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 있는 부모들에 비해 요리든, 살림이든, 육아든 턱없이 부족하고 미숙하고요. (사례B)

천만 원 빚 때문에 독촉장 날라오고 법원이랑 채권자도 연락 오고요. 애가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상황은 안되잖아요. 우리야 밥을 안 먹고 그럴 수 있었지만 아기는 아니니까. (사례D)

돈이 없었어요. 당장 잘 곳이 없어서 친구 집, 모텔 전전하다가 결국 피시방 가서 자고 이랬으니까요. 결국 아내는 1년반 동안 미혼모 시설 들어가고. 전 밤, 낮으로 알바하고. (사례E)

그때 못 먹을 때가 더 많았어요. 남편 일하던 직장이 망하고. 미성년자여서 집 구하는 것도 한정적이었고. 모텔 똥리는 곳에서 장기 투숙하면서 그냥 한 끼에 컵라면 하나로 둘이 나눠 먹고 그랬었어요. (사례J)

그러면서 이들은 청소년 시기를 보내야 할 나이에 부모라는 어른의 삶이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자신도 또래 친구들과처럼 놀고 싶거나 자유롭게 지내고 싶기도 했고, 또다시 친구들의 평범한 삶이 부러웠다고 진술했다. 스스로 선택한 결정이었지만 육아와 집안일, 현실적인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부모의 삶이 너무나 버거웠기 때문이다. 일부 참여자는 이러한 상황에 극에 달한 우울감을 느껴 약물복용, 자해 등 위험한 상황까지 경험하기도 했다.

스무 살부터는 성인이니까 술도 마실 수 있는 나이잖아요. 다들 아기 낳으면 친정이나 시댁에서 도움받고 자기 시간도 갖는데. 전 혼자서 아기보고, 집안 일하고, 살림하고, 밥 먹이고. 산후우울증으로 약물 과다복용하고 맨날 실려 가고.. 칼로 자해하고 했죠. 저도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게 신기해요. (사례B)

출산하고 기댄 곳은 없었죠. 그냥 혼자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전 그냥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일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술도 마음대로 먹고. 늦게 들어가도 되고. 거기에 제가 끼면 민폐예요. 제가 끼면 아기까지 데려가야 하니까. (사례I)

돈도 없고 힘들고 막막했어요. 미성년이라 혼인신고, 출생신고조차 못 하고. 부모님 동의 없이는 19세 지나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으니까. 진짜 청소년 나이로 모든 게 다 어려웠고 막막하고.. 답도 없고. (사례J)

나. 불안했던 유년시절의 굴레가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음을 직감함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 당시 ‘절대 부모 같은 부모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버겁고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부모와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자신의 부모처럼 아이를 두고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거나, 아이를 방치하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등 어릴 적 상처였던 부모의 모습이 자신에게서 보일 때마다 큰 절망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살다 보니 ‘아빠 같은 아빠는 되지 말아야지’ 그게 어려워요. 아기는 많이 울잖아요. 제가 원래 우는 사람을 싫어해요. 아빠처럼 되지 말자 해도 제가 무섭게 하게 돼요. 아빠 피다 보니까.. 최악이죠. 몸과 머리로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몸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례A)

결국 저희 엄마, 아빠는 이혼했고. 각자 가정이 생겼고. 저는 그런 무책임한 부모가 되지 말자고 해놓고.. 첫째 애아빠랑 헤어지고, 둘째 애아빠랑도 이혼 얘기 오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랑 다른 게 뭐지 싶고. (사례B)

애 낳기 전에 가난은 내 대에서 대물림을 끊어야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잘 안 돼요. 딸 보면 그냥 어렸을 때 절 보는 느낌이 들어요. 가난이 지긋지긋했는데 결국 돈에 쫓들려서 살고 애한테도 못해주고 있잖아요. (사례E)

애한테 부모는 두 명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는데도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저도 엄마가 없어서 빈자리가 너무 컸잖아요. 저만 생각해서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걸 저도 알고 있지만요. (사례I)

연구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만나 아이를 낳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이라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고 진술했다. 배우자와 다툼이나 폭행이 생기기도 하였고 이별이나 이혼 등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되기도 했음을 진술했다. 심각한 수준으로 싸우거나, 치고받고 몸싸움을 하는 등의 상황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노출되기도 했다. 자신이 어릴 적 경험했던 감정을 자녀가 고스란히 경험할 걸 알면서도 배우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멈추기 어려웠음을 진술했다.

둘째 임신했을 때부터 앤 정신 못 차리고 유흥업소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자 만나 외박하고. 만삭에도 얼굴 때리고 몸도 패고, 발로 차고, 멍살 잡고 질질.. 전 손목 칼로 긁고. 그 모든 과정을 첫째는 다 보면서 크고.. (사례B)

이젠 쌍욕 하면서 뭐라 해요. 이혼 위기도 많았어요. 옆어치기 하거나 뺨 때리거나 목 조르거나.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자고 집도 나왔는데 내가 왜 이따위로 살고 있지? 그냥 죽자’ 생각이 들고. (사례C)

싸울 땐 개같이 싸워요. 몸싸움은 기본이고 물건 던지고 다 깨부수고. 아이 앞에서 몸싸움하는 걸 보이기도 했어요. 그 싸움이 끝나면 애 앞에서 싸움을 했다는 것과 그 싸움을 한 것과 모든 게 후회가 되고. (사례D)

최근 아내랑 크게 싸우고 이혼하려 했었어요. 각자 어깨에 짊어진 무게 때문

에 진짜 지쳤거든요. 저희가 싸우면 얘기가 어려도 다 알 거란 말이죠. 아기도 다 생각을 하고 그럴 텐데. 미안하죠. (사례E)

이처럼 출산 직후의 삶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 한계와 냉혹한 현실을 느끼고 좌절했다고 진술했다. 설상가상으로 배우자와도 크고 작은 다툼들이 생겨나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음에도 멈출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 시기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려 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과 한계 등 막막함을 느꼈고, 배우자와도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에게도 불안한 삶을 주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 본질적 주제가 나타났고, ‘불행한 유년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구한 삶의 대물림’이라는 본질적 주제가 구성되었다.

4) 부모라는 이름의 무게 견디기

가. 나를 지탱하게 하는 자원이 생김

연구 참여자들은 중졸 또는 고졸 상태로 양육을 시작하였고, 배우자도 크게 다른 상황이 아니었기에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었다. 일용직이나 배달, 판매업, 제조업, 공장업 위주였기에 꾸준히 일하기가 어려웠고, 경제적 궁핍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일부는 가족이 다소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도 했으나 턱없이 부족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부모를 도와줄 수 있는 기관들(LH, 기초 생활 수급, 지자체 지원금, 쉼터, 미혼모시설 등)을 찾을 수 있었고,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어 큰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동사무소에서 물품 같은 건 옛날에 한두 번 받았던 것 같고. 직장을 원단공

장으로 옮기고 수입이 올라서 기초수급은 잘렸지만 주거 수급은 받고 있어요. LH 공공임대주택도 이번에 지원서 썼고요. (사례A)

코로나 겪고 여러 가지 좀 겹치면서 일이 힘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아내가 센터에서 물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신청해보자 해서 지원받고. (사례E)

남편이 하루에 3개씩이나 일을 뛰는데도 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저는 센터에서 아동수당이랑 양육수당 들어오는 걸로 지냈고. 그리고 센터 친구들한테 청소년부모 지원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받고. (사례F)

가족한테 도움받을 수 없어서 시설에 들어가서 한 2년 살다가 나와서 LH로 구한 게 이 집이에요. 초000에서 보증금 지원받고 미혼모0000에서 가구, 가전 지원받았죠. 생활비는 수급 받는 걸로 생활하고. (사례I)

여러 힘든 상황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만 보면 행복함과 기쁨을 느꼈다. 아이 그 자체가 정서적 자원이 되어줌을 경험하며 삶의 원동력이라고 진술했다.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배우자와의 갈등이 있더라도, 육아가 너무 힘든 순간들을 경험하더라도 아이의 존재가 자신의 삶의 이유가 되었다고 진술했다.

힘든 만큼 예뻐요. 너무 예쁘죠. 보고 있으면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소중한요.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잘 해주고 싶어요. 잘 살게 해주고 싶어요. (사례B)

즐거워요. 이제는 말을 좀 엄마 아빠 맘마 하거든요. 제가 어디 나갔다 오는

길이거나 딸이랑 아내랑 어디 갔다 오는 도중에 길에 제가 보이면 딸이 ‘아빠~~~’ 하면서 막 뛰어와요. 너무 사랑스러운 원동력이죠. (사례E)

너무 예뻐 죽겠어요. 귀엽고. 울 때 찡그리는 것도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뻐 죽겠어요. 저랑 남편의 좋은 것만 쓱쓱 가졌고. 그냥 쳐다만 봐도 행복해요. 그래서 잘 키우고 싶어요. (사례G)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모델링이 가능한 주변인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 닦고 싶은 형제, 미혼모시설에서 만난 언니, 아는 형 등 이러한 인적 자원을 통해 자신의 목표도 생겼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고 싶다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다.

전에는 일하고 와서 육아도 하는 걸 억울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는 형도 애를 키우는데 일한다고 해서 와이프가 아기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라고 혼내더라고요. 형 애기 들으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깨달은 게 많기도 하고. (사례A)

아는 형이 현장 긴급출동하는데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차는 만질 줄 아니까요. 한파 때는 월 천씩은 벌었다고 하더라구요. 그 일 하다가 제 꿈 이루기 위해서 빌드업 하려고요. 여기서부터 차곡차곡해야죠. (사례E)

제가 OO자격증을 따고 싶은 게 친구가 OO팀에서 일하거든요. 개 보니까 되게 멋지고 그걸 저도 하고 싶어졌어요. 제 로망이 회사원처럼 한 손에 아메리카노 들고 출근하는 거 개가 그러더라고요. 제 로망이에요. (사례I)

나. 부모가 되어 다시 바라본 원가족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부모가 되고 나서 부모에 대한 감정을 재정리할 수 있었다. 어릴 적 부모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 그것과 반대된 고마움과 사랑 같은 뒤엉킨 감정들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몇몇은 출산 후에 부모의 과거의 실책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고 하였고, 부모에 대한 감정이 재정리되며 부모가 나를 사랑했음을 느끼기도 하였다고 진술했다.

출산을 하니 제가 엄마가 된 거잖아요. 엄마가 되니 엄마로서 엄마가 이해가 가더라구요. 이해가 되니까 엄마한테 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엄마가 됨으로써 그때의 엄마를 이해하니까. (사례D)

아기를 낳으면서 제가 엄마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음보다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키우셨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례F)

처음에 엄마가 출산을 극구 반대했었잖아요. 되게 미웠는데 저희 엄마도 열여덟에 언니를 낳고 힘들게 경험했으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젊은 시절을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 강하게 반대하셨던 거겠죠. 이렇게 일찍 부모로 희생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사례G)

몇몇의 연구 참여자들은 아직까지도 부모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덤덤히 받아들이는 체념에 가까운 수용의 마음을 나타냈다. 이들은 자신을 정서적으로 방임하거나 신체적인 폭력을 일삼은 부모를 용서하기는 힘들지만,

과거의 사실을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엄마는 새 가정 만들었고, 결국 아빠도 여자친구한테 떠났고.. 뭐 사실 각자 인생 살고 싶었겠죠. 엄마랑 아빠가 당시 힘들었고 그래서 새 가정 찾아간 거겠지만. 어쨌든 뭐 저를 누구 하나 책임져주진 않았죠. (사례B)

아빠가 폭력이 심해서 제가 가출을 했었잖아요. 저한테만 그랬고 동생들한테는 잘해줘요. 제가 실험 대상이었던 거고. 속상한데 어찌겠어요. 저희 아빠 엄마인데. 그냥 다 그러려니 하고 참고 살아온 거죠. (사례C)

저는 엄마가 필요한 시기에 엄마가 없었잖아요. 그냥 궁금했어요. 내가 궁금하면 나를 찾아올 법도 한데 엄마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기다림이 길다 보니 저절로 포기하게 된 것 같고. 엄마도 잊었겠죠. (사례I)

엄마 아빠는 늘 저한테 '널 낳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말을 항상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동안 그들에게 저는 짐짝이었나 보죠 뭐. (사례J)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원가족과 갈등 관계에 놓이고 불편했던 관계가 아이로 인하여 조금이나마 개선된 부분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비록 끈끈한 관계는 아니더라도 단절했던 부모와 연락이 다시 닿게 되었다거나, 드물게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가 생겼다거나, 가끔 아이를 돌봐주기도, 나아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아이로 인하여 원가족과의 새로운 상호작용이 생겨남을 알 수 있다.

딸 태어나고 본집에 아내랑 딸 데리고 갔죠. 어머니가 낳기 전까지는 반대했

지만 그래도 내 손녀고 내 핏줄인데 어떻게 미워하냐고. 이제는 손녀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손녀가 자신의 삶에 원동력이라고 하시고요. (사례E)

애 때문에 아빠랑 화해도 했고. 그전에는 아빠가 제 연락을 무시하시다가 딸로 인해서 연락 주고받으면서 만나고 서로 교류하고 있어요. 딸 덕분에 할머니도 봤어요. 저랑 어렸을 때랑 똑 닮았다고 좋아하시고. (사례F)

출산 날에 ‘엄마 나 애 낳았다’ 연락 드리니까 엄마가 바로 달려오셨더라고
요. 첫째 보고 또 ‘우리 손자’ 이러면서 좋아하시고. 지금은 그래도 저희랑
가까이 살고 있으니 아기 보거나 할 때 가끔 도와주시고요. (사례G)

아기 낳고 나서 가족들이랑 멀어졌다가 아빠가 아들 한번 보고는 계속 손자
만 찾아요. 5개월 때인가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다음에 계속 연락 오고. 막
상 아들 보여드리니까 사이가 조금 풀어졌어요. (사례H)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원가족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
은 불청객 존재로 느낀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부모와 연을 끊고 지내거나
연락을 하더라도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고 느낀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신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는 부모에게 여전히 기대하는 것이 없고, 서로
그 어떤 것도 바라지도 않는 상태라고 진술했다.

출산하고 가족을 이해시킨다 해서 이해를 해줄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가족들
한테 힘들다 한마디라도 하면 ‘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거냐. 힘들
다 소리 하지도 마라’ 이렇게 나오니까요. 따로 연락을 안하는거죠. (사례B)

출산하고 나서 아예 단절이죠. 연락은 당연히 없고요. 고모들도 재판하고 나서 연락 다 끊었고. 새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친동생도. (사례H)

6년째 연락 안 하고 있죠. 엄마, 아빠, 남동생, 언니 다 안해요. 그냥 저희 가족 다 남처럼 지내고 있어요. 지금도 인스타 보면 지들끼리 행복해요. 저만 빠진 느낌. 아직도 전 불청객이죠. (사례J)

다. 다부지고 굳센 부모가 되어 감

연구 참여자들은 원가족을 떠나 새로운 나의 가정에서 심리적 해방감을 느낀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들은 이전의 원가족과의 경험과 달리 자신의 가정에는 비교적 안정감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토록 자신이 갈망했던 평범한 일상과 가정을 이곳에서는 이룰 수 있고, 나아가 이들의 삶에도 안정감이 찾아왔음을 진술했다.

아내는 아기도 잘 보고 저를 늘 품어주고 이해해줬거든요. 진짜 진짜 아내랑 애들한테 제가 잘해야죠. 그냥 고마워요. 여기에서는 이제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사례A)

과거의 삶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지금 삶이 더 저한테 안정적이고 양육이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오히려 좋죠. 남편 만나고 불안감도 조금씩 사라졌고 첫째 낳고 불안은 완전히 해결되었으니까. (사례D)

제 가정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힘이 생겨요. 제 가정에 울타리를 쳤고 울타리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 보면 만족하고 뿌듯하고 그래요. 그걸 제일

크게 느낄 때가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밥을 해놓고 있고, 딸이 현관까지 마중 나올 때예요. (사례E)

저랑 남편은 되게 재밌게 살고 있어요. 하하 지금도 서로 엄청 많이 아직도 의지가 되고요. 새로운 가정을 만드니 너무 좋고 엄청 편하죠. 가족이랑 살 때 제가 환경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병이 좀 많은데 거기서 살았을 때보다 지금 증상은 줄었으니까요. (사례J)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부모의 한계로 경제력, 집안일, 육아 등에서 다른 부모들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느끼며,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맛있는 것도 먹이고 싶고, 키즈 카페도 데려가고 싶고, 좋은 옷도 입히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다고 하였다.

더 주지 못해서. 더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원래 부모들은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더 미안하죠. (사례B)

예쁜 옷도 못 입히고 항상 얻어 입히고. 먹을 게 없어 제대로 못 주고. 다른 친구들은 키즈 카페도 놀러 가고 하는데 못 가고요. 어린이집 갔다 와서 TV나 보여주고 재우고. 많이 미안하죠. (사례C)

딸한테 많이 해주고 싶지만 쉽지 않아요. 사실 저희는 모든 걸 저희 힘으로 해야 하니까. 늘 부족함이 있고. 딸한테 사주고 싶은 것도, 먹이는 것도 못해주는 게 마음이 아파요. (사례E)

딸 보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 들어요. 좀 뱃속에서부터도 힘들게 자랐는데.

만약 더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아기 옷들
이랑 용품들은 엄청 비싸니까 다 못 해줘서 미안해요. (사례F)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비참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는 달리
자녀에게 평범한 가정을 만들어주고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무던히 노
력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갈망해온 평범한 가정의 모습은 엄마, 아빠
가 함께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것과 아무도 안 맞고, 다 같이 밥 먹고,
다 같이 얘기하고, 떨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으로 진술했다. 이
들은 그런 평범함을 아이에게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제가 아내에게 먼저 얘기를 꺼냈는데 ‘나는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 애들만큼은 저희처럼 엄마나 아빠 없는 애로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울면서 약속했어요. (사례A)

저는 제가 엄마랑 아빠한테 받아본 적 없는 것을 애들한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든, 시간이든, 같이 하는 거든, 엄마는 항상 ‘네 편’인 사람이
라는 것도. 알려주고 싶어요. (사례B)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어떻게든 내가 널 평범하게 살게 해주겠다.’ 아
이에게는 딱 이 마음이에요. 돈 열심히 벌어놓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시간을 함께 같이 보내주고, 대화할 시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사례D)

저는 평범해지고 싶어요. 저의 이전 삶은 평범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평
범한 가정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저한테 평범한 것은 그
냥 다 같이 밥 먹고, 다 같이 재밌게 얘기하고, 여행 가고, 외식하고 그런 거

요. 그냥 되게 소소한 거예요. 그런 가정을 만들 거예요. (사례J)

이들은 자신이 되고 싶은 부모의 상으로 언제든지 집에 돌아오면 있는 부모, 어떤 것이든 말할 수 있는 부모, 친구 같은 부모를 떠올렸다. 어떤 상황에도 아이의 편이 되어주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다고 했다.

친구 같은 엄마. 저는 딸이 친구처럼 그냥 편안하게 다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 말을 못 하고 혼자 참다가 병이 된 거라. 가족이 저를 이해하지 못해서 밖으로 나가 돌면서 사고 치고 그랬던 거거든요. (사례F)

저는 막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말도 잘 통하는. 애들이 저를 많이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도 많이 놀러 가고 그러고 싶어요. (사례G)

하나밖에 없는 친구처럼 저를 대했으면 좋겠어요. 못하는 얘기 없이 막 다 하고 진짜 완전 그냥 둘도 없는 친구처럼 아들이랑 지내고 싶어요. (사례I)

연구 참여자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단단하게 성장해가고 있었다. 몇몇은 미래를 위한 자기개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자녀 양육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주체적인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책임감 있는 부모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저는 애들 낳고 제 이름 없이 애들 엄마로 사는 거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은 번도 없어요. 지금이랑 다른 선택 했으면 그걸로 평생 후회했을 것 같아요. 일단 좋은 것만 보게 하고 잘 키워 내는게 제 목표예요. (사례B)

앞으로 저도 일을 해야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싶고, 검정고시 공부하고 싶어서 꿈OO에 해보겠다고 신청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장도 따고요. (사례C)

저도 남편도 첫째 딸 보면서 열심히 살아요. 만약 저희 둘이 애가 없었으면 ‘오늘 좀 힘든데 오늘 저녁 좀 설까?’ 했을텐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저도 내년에는 일을 해서 계획으로는 집이나 차 둘 중에 하나라도 사려구요. (사례D)

이처럼 출산 후부터 현재까지의 삶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도 했음이 나타났다. 주변의 도움의 손길이 생겼고, 자녀 양육 또한 즐겁고 보람찬 일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부모가 되어 자신의 부모에 대해 감정을 재정리해 보기도 했다. 이는 복합적인 감정으로 이들에게 부모에 대한 감정의 잔흔은 여러 형태로 남았음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로서의 도전하는 과정과 이전의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에 놓여 있었기에 ‘부모라는 이름의 무게 견디기’라는 본질적 주제가 구성되었다.

4. 일반적 구조기술

본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게 된 경험에 대한 4개의 본질적 주제에 대한 구조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본질적 주제를 중심으로 일반적 구조기술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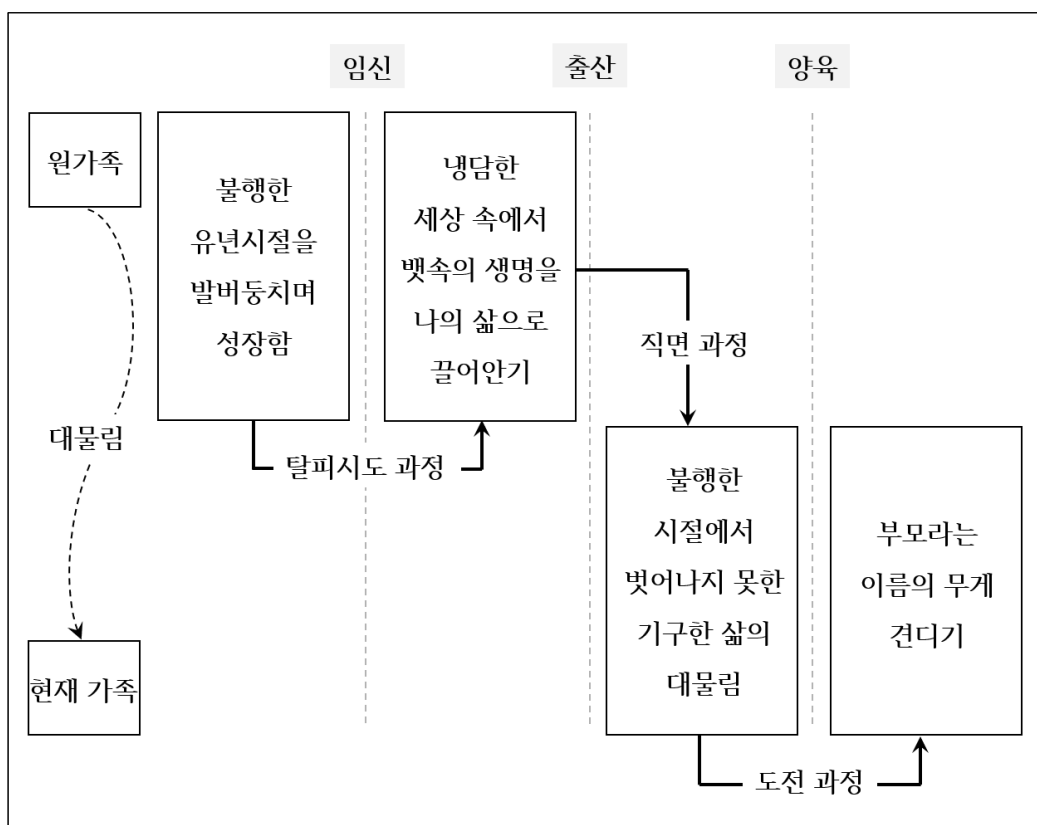


그림 1. 본질적 주제에 대한 구조모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출산과 양육 결정 경험에 대한 체험의 본질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질적 주제에 대한 구조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첫 번째 본질적 구조는 ‘불행한 유년시절을 발버둥치며 성장함’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출산 전 고단한 삶을 살았다. 아버지의 심각한 가정폭력을 견뎠던 A와 C, 이혼한 부모의 방임과 할머니의 폭력을 감내했던 B, 장애라는 결핍의 불안 속에서 늘 혼자였던 D, 찢어지게 가난했던 과거의 아픔을 가진 E, 가족의 정서적 결핍을 느끼고 외로움을 경험한 F와 I, 복잡한 가정사로 평범한 가족을 꿈꿔왔던 G, 새엄마의 끔찍한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H, 감옥과도 다름없던 집에서 발버둥 친 J의 경험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출산 전의 삶의 경험에서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으로 친부 또는 친모가 없는 구조적 결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부모 혹은 주 양육자(할머니, 새엄마, 형제 등)로부터 정서적 방임, 방치, 폭력, 심지어 학대에 가까운 경험을 하며 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은 원가족에 대한 분노, 혼란, 슬픔, 원망 등 극심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에 충분했으며, 이들이 평범함을 갈망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처럼 발버둥치며 성장했던 유년시절의 경험은 임신 사실을 알고난 후 ‘냉담한 세상 속에서 뱃속의 생명을 나의 삶으로 끌어안기’의 본질적 구조로 연결되었다. 갑작스러운 임신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복잡한 감정을 야기했고, 두려움과 불안함, 신기함과 기대감 등의 혼란한 감정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누구에게도 환대받지 못하는 생명의 임신에 세상으로부터 유리된 고독한 시간을 경험하며 낙태와 출산 사이에 괴로운 줄다리기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거의 삶에서 이들은 평범한 가족을 부러워하며 갈망해왔기에 아이를 책임져야겠다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했다. 아이에게 평범한 삶을 주고 싶은 마음, 자신의 부모처럼은 키우지 않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기회일 수 있다고 느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고 새로운 삶으로 향하고자 하는 탈피 시도과정을 겪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에게 부모의 삶은 어려웠고 현실은 냉정했다. 이러한 원인은 ‘불행한 유년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구한 삶의 대물림’ 본질적 구조로 연결되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한계와 궁핍함은 날로 더해갔고 냉혹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좌절감을 느꼈다. 평범한 삶을 살고자 선택한 자신의 결정이 잘못된 건가 싶은 순간으로 느껴지기도 하며 자녀를 낳은 것 자체를 후회하기도, 평범하게 교복 입고 친구들과 놀러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워지는 순간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내면의 갈등은 점점 커졌고, 설상가상으로 배우자와 잦은 다툼으로 이혼까지 오가는 상황도 겪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책임감 없던 과거의 부모와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좌절감과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며, 현 상황에 대한 직면하는 과정을 겪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현실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과거의 살아온 삶과 다르게 살고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고단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부모라는 이름의 무게 견디기’의 본질적 주제로 연결되고 있었다. 이들은 부모 된 삶에 천천히 적응하면서 진정한 부모 됨을 경험하는 과정 중에 있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가 된 상황에서 원가족을 다시 바라보며 원가족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기도 했다. 감정이 재정리되며 사랑이나 수용의 감정이 들기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으로 제각각 다른 형태로 남겨졌음이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의 양육을 결정하게 된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찾는 과정은 과거의 삶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유년 시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주요한 4가지의 본질적 의미로 일반적 구조가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V. 논 의

1. 연구의 결론 및 의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부모가 양육을 결정하게 된 경험에 대해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중심의미 30개, 드러난 주제 10개, 본질적 주제 4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의 결론 및 의의를 본질적 주제와 드러난 주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 전 연구 참여자가 어린 시절 원가족과 겪었던 경험으로는 ‘불행한 유년시절을 발버둥치며 성장함’의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고, ‘평범한 일상을 동경함’, ‘울타리 없는 가정에서 자란 유년시절’, ‘의지할 대상을 갈구함’의 3가지 드러난 주제가 나타났다.

우선, ‘불행한 유년시절을 발버둥치며 성장함’에서는 부모의 이혼, 재혼, 사별과 같은 경험을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가 경험하였으며, 정서적 방임, 신체적 폭력, 학대 또는 빈곤의 경험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과거는 이들에게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자리했고, 부모에 대한 분노, 혼란, 슬픔, 불안, 복수심 등 극심한 부정적 정서가 생겨나 ‘평범한 일상을 동경’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가장 큰 위기이자 위기적 사건으로 본 연구(정현숙, 1993)나 신체적 학대 이력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임신 가능성이 1.5배가 높으며, 성적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임신 가능성이 2배가 높다는 결과를 보여준 연구(Madigan et al., 2014), 성적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2배에서 5배 이상으로 임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Noll et al., 2009; Homma et al., 2012), 정서적

학대와 가정 폭력, 학대 및 방치, 한부모 가정이 임신 확률을 높인다는 결과를 나타낸 연구 (Thompson et al., 2008; Williams & Vines, 1999), 정서적 교류가 없는 가족 기능 장애, 아버지의 부재, 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과 소득이 임신의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본 연구(Trinidad-Noguera et al., 2015),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임신에 연관에 대한 연구들(Hogan & Kitagawa, 1985; Young et al., 2004)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가정 환경이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에 대한 분노, 혼란 등 극심한 부정적 정서를 느낀 연구 참여자들은 일탈과 비행을 경험하며 ‘울타리 없는 가정에서 자란 유년시절’을 보냈음이 나타났다. 부모의 이혼, 재혼, 이별, 사별 등 부모의 갈등을 목격하는 긴장감, 부모의 별거나 이혼으로 생긴 불안함, 변화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들에서 청소년들은 극심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Johnson, 1986; 정현숙, 1993 재인용). 국내 연구들에서도 부모의 이혼, 별거 등 자녀의 비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기광도, 이희길, 2004; 정현숙, 1993). 더불어 부모의 신체적 폭력(신혜섭, 2005)과 폭언(기광도, 이희길, 2004)은 청소년 시기의 비행의 주요한 원인이 되며, 이혜지(2015)의 가정폭력과 비행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외현화 및 내재화 반응의 증상으로 공격 성향과 비행, 자살사고, 우울, 불안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원가족에게 수용과 이해를 받지 못한 채 정서적 방임과 신체적 학대 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은 가출, 일탈, 비행, 소년원 또는 쉼터 등의 시설입소 등을 경험하기도 했고, 심한 경우 반복적인 자해, 약물복용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출산 전의 연구 참여자들은 원가족으로부터의 소외로 인하여 나와 유사한 배경과 정서를 경험한, ‘의지할 대상을 갈구’하게 되었고 이는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실제로 대부분 연구 참여자의 배

우자들은 연구 참여자와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10명 중 8명은 배우자 또한 이혼, 별거 또는 재혼가정 등에서 자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들의 유년 시절의 삶은 유사한 측면이 많았으며 동일하게 평범한 가정에서 살기를 꿈꿔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과 유사한 배경을 가진 대상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한희선, 김혜선, 1995),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유사한 배경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상대방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현재의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상황적 요인은 그들이 자신과 닮은 배우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의 재정립을 서둘러 시도한 요인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었다. 선행연구로 제시했던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임신 요인을 가족 구성의 변화(김혜영, 2010), 탈 전형화된 가족 경험으로 인한 부모의 통제력, 영향력 감소(서정애, 2009), 가정생활의 중요성(윤혜미, 1999) 등 가족을 둘러싼 외부의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하기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부정적 정서로 인한 심리적 갈등이 크게 작용하여 평범한 가정을 더 갈망하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내부적 요인에서 기인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출산 결정 시기의 삶에서는 청소년이 임신을 알게 된 직후부터 출산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과 더불어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내적·심리적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냉담한 세상 속에서 뱃속의 생명을 나의 삶으로 끌어안기’의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고, ‘환대받지 못하는 생명의 임신에 세상으로부터 유리된채 고독한 시간을 보냄’,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리라 다짐하며 출산을 결심함’의 2개의 드러난 주제가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을 알고 난 후 자신의 정체성과 다가올 미래에 대해 혼란을 느끼며 원가족으로부터 낙태와 입양을 권유받는 환경에 놓이거나, 임신 사실에 부모와 갈등 관계에 놓이며 부정당하거나 외면받았음을 진술했다. 그렇게 ‘환대받지 못하는 생명의 임신에 세상으로부터 유리된채 고

독한 시간을 보내며’ 단호한 부모의 태도는 부모와 연락을 끊게 된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혼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이다가 어렵게 임신을 고백하면, 대부분의 부모는 수치로 여겨 낙태를 강요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관계를 단절하기도 했다는 연구(정미경, 김승용, 2020; 정미경, 2020; 김지혜, 2021; 김혜영, 2010)들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리라 다짐하며 출산을 결심’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로 했다. 출산 결정 요인은 자신의 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신비로움, 경이로움, 책임감, 애착, 생명에 대한 가치나 낙태와 관련된 윤리적 판단(김혜영, 2010), 배우자의 수용과 지지, 이성 친구와의 결실로 의미화(서정애, 2009),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 인식(김은녕, 2019) 등 여러 연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은 맥을 보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과 배우자의 책임이지 아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뱃속의 생명에 대한 애처로움과 안쓰러움을 느꼈고, 이에 아이를 잘 키워내야겠다는 책임감과 의연함으로 바뀌며 자신이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대상으로 인지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결정 시기에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난 것은 뿌리 깊게 자리하는 원가족 경험의 부정적 영향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원가족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나는 부모 같은 부모는 되지 말아야겠다’고 진술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 대한 원망감이 컸고, 돌봄의 부재를 경험하며 평범한 삶을 갈망했다. 부모에 대한 원망은 자신이 부모가 된 역상황에서 자신과 다르게 자녀를 안정적인 가정에 살게 해야겠다는 의지와 동기로 작용했음이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가정과 자녀를 통하여 가정의 행복감, 안정감, 평범함, 평안함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한편으로는 무책임한 부모도 자신을 키웠는데 자신은 그보다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도 들었다고 진술했다. Williams와 Vines(1999)의 7명의 청소년부모에 관한 현상학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원가족에서의 학대, 방치를 경험했고 기존의 삶에서 도망쳤다고 나타났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임신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고, 출산은 자신이 선택한 올바른 일이었으며 새로운 삶의 기회로 느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청소년부모들은 부모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반대로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게 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출산 후의 삶에서는 경제적 한계, 부모됨의 한계 등의 경험들이 나타났다. 이에 ‘불행한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구한 삶의 대물림’의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고, ‘출산 후 맞닥뜨린 고단한 현실의 벽’, ‘불안했던 유년시절의 굴레가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음을 직감함’의 2개의 드러난 주제가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출산 후 돈, 집, 빛 등 경제적 능력의 한계로 인한 현실의 어려움, 즉 ‘출산 후 맞닥뜨린 고단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었다. 백혜정과 김지연(2013)의 연구에서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사전의 준비나 부모나 주변의 도움단기 없이 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 현실이 벽차고 막막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청소년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경험해야 하는 어른의 삶을 버겁게 경험하고 있었다. 또래 친구들의 삶이 부럽기도 하였고, 친구들과처럼 유흥을 즐기고 싶은 욕구를 느끼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출산 후 우울감과 극단적인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하여 일부 참여자의 경우 약물복용, 자해 시도 등 위험한 상황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부모의 62.6%가 출산 후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하

며, 심한 또는 매우 심한 정서적 호소는 29.5%에 이른다는 연구(백혜정, 김지연, 2013)와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청소년이 52.6%으로 나타났다는 실태조사(통계청, 2021)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여성가족부(2022)의 실증연구에서 청소년부모 68.3%은 산후우울감을 느꼈지만, 이중 90% 이상이 전문상담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결과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도 몇몇의 청소년부모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어 심리적 도움이 절실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모 같은 부모가 되기는 정말 싫었으나 자신도 결국 부모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불안했던 유년시절의 굴레가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음을 직감’하며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무책임한 부모를 보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부모처럼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고, 배우자와 잤은 다툼, 폭행으로 이혼 욕구를 느끼고, 출산 자체를 후회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삶이 여전히 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대물림에 대한 내용이 여러 차례 발견되었다. 앞의 내용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과 닮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 교제 후 거의 바로 임신을 하였다. 10명의 연구 참여자의 임신 시기는 교제 후 2개월~4개월 사이로 평균 3개월이 안되어 임신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성적 충동의 해소나 친밀한 신체적 관계로의 진입을 통해 위로받으려는 경향도 보여진다(Benoit, 1997; 윤혜미, 1999 재인용). 게다가 10명의 연구 참여자 중 7명 참여자의 친부모는 동일하게 9세 이상 24세 이하에 임신하거나 출산하여 양육한 경험이 있던 청소년부모였다. 앞의 내용처럼 청소년부모의 특성은 경제적, 정서적 여유가 없고 자아정체감이 덜 확립된 상태로 양육을 시작하다 보니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나이가 어린 부모 됨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보였고, 그 관문이 남들보다 낮다는 점이 부모의 모습과 닮아있었다. 강지나

(2015)의 대물림에 관한 질적연구에서는 성장기 청소년들은 가족과 가정생활에서 습득한 가치체계가 생활의 일차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실제로 몇몇 참여자의 집안은 할머니부터 아빠, 엄마, 가족 어른들까지 17~19세 출산으로 나이가 어렸다. 이러한 청소년부모의 삶은 조부모가 출발지였고 부모를 거쳐 자신까지도 반복되기도 한다는 점(강지나, 2015)에서 맥을 같이하고 있었다. 이민정(2019)의 연구에서는 한 가족의 기능 상실, 부조화, 정서적 방임, 가정폭력 등의 문제는 몇 세대를 걸쳐 대물림이 된다고 보았다. 대부분 자녀의 문제가 있다고 호소하는 부모는 그의 부모에게 부정적 양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희와 이수림(2015)는 부정적 양육이 세대 간을 통해 대물림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어린 시절 자신이 경험했던 가정폭력, 결손 경험, 부재한 돌봄, 애정 결핍과 유사한 부정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더불어 몇몇 연구 참여자는 배우자와의 불안한 관계로 변했고 불신, 불안, 잦은 다툼, 언어폭력, 신체폭력 재경험함을 고백했다. 그들은 원가족에서 경험한 미해결된 감정을 처리하지 못한 채 배우자를 만났고 또다시 불화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물림을 반복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관계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절실하며, 더 나아가 원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의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청소년부모는 현실을 버티고 견뎌내며 부모로서 성장하고 있었다. 이에 ‘부모라는 이름의 무게 견디기’의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고, ‘나를 지탱하게 하는 자원이 생김’, ‘부모가 되어 다시 바라본 원가족’, ‘다부지고 굳센 부모가 되어 감’의 3개의 드러난 주제가 나타났다.

출산 후 경제적으로 암담했던 청소년부모에게 LH 임대주택, 시설 지원, 지자체 지원, 기초 생활수급, 유아용품, 분유 등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아이가 주는 정서적 기쁨

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단한 일이지만 아이의 존재 자체가 연구 참여자들에게 고단한 현실에 맞설 용기를 주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부모는 아이와 관련된 작은 것만으로도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게 한다는 선행연구(황은민, 2021)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가 되어 다시 원가족을 바라보며’ 자신의 부모에 대한 감정이 재정리되고 있음을 경험했다. 이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재정리 되기도, 긍정적인 감정으로 재정리되기도 하였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원가족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단절 상태이며, 원가족에서 수용되지 못한 자신을 ‘불청객’ 처지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원망스럽기만 했던 그 당시 부모의 입장과 부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려볼 수 있는 여유도 생겼으며, 인간적으로 부모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겼다고 진술했다. 이는 학대를 경험했던 자녀라도 부모를 무조건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걱정, 가족의 걱정,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고미영, 2004)와 맥을 같이 함이 나타났다. 또한 일부에게서는 자신의 부모를 조금이라도 수용하려는 태도도 관찰되었다. 방임하고 학대하고 최선의 양육을 하지 않았던 부모로 인해 어린 시절의 비극적 경험을 하게 한 것은 완전히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조금은 더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현미(2006)와 이소라(2010)는 외상 사건 후 감정, 생각을 받아들이고 충분히 경험하는 심리적 수용은 오히려 심리적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비슷한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 참여자들은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감정까지 다다르지 못했지만 바꿀 수 없는 과거의 경험을 의도하여 외면하지 않고, 도전하여 직면하고 수용했다. 이는 Williams와 Vines(1999)의 7명의 청소년부모에 관한 현상학 연구에서도 나타난 결과로, 출산 후 원가족과 다시 연결되거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가족을 떠나 새로운 가정에서 심리적인 해방감과 안정감을 느끼며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의 책임감, 소속감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긍정적 경험을 한 진술도 존재했다. 아이에게도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비참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달리 아이에게는 평범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공통적인 의지를 보이며 ‘다부지고 굳센 부모’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들에게 이전의 원가족의 경험은 자식에 대한 사랑에 대해 더 견고하고 애뜻하게 만들었고, 아이에게 더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함을 갖게 하였다. 이문희와 이수림(2013)의 애착외상 연구에서는 아동이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성적, 신체적 방임, 심리적 방임을 경험하였다면 불안정 애착 체계가 성인기까지 지배하는데, 이것을 극복하게 돕는 요소가 새로운 ‘새로운 관계 경험’, ‘중요한 삶의 사건’ 등의 경험(McLewin & Muller, 2006)이라 주장한 바 있다. 오히려 외상 사건을 극복하며 외상 이전의 적응수준을 넘어서는 삶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외상 후 성장 과정은 자신의 경험을 마주하고, 수용하고, 통찰하게 되는 과정들을 통해 긍정적 변화와 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Calhoun & Tedeschi, 2004). 청소년부모의 새로운 가정과 출산이라는 중요한 삶의 사건, 관계 경험들을 통해 청소년부모들은 자신의 외상을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과거의 반복되는 답습하지 않으려 노력한 경우에는 새로운 가정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양육 결정 경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청소년부모는 뱃속에 아기를 생명으로 인식하며 애처로움, 측은함, 책임감, 애착 등의 다양한 심리적 역동이 발생하였고, 이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다. 둘째, 원가족으로부터 야기된 분노, 혼란, 원망, 불안 등 부정적 정서는 자신이 부모가 된 역상황에서 그간의 감정이 반추되는 경험을 하며 자신의 부모 같은 부모는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자신의 가정에

서 행복감, 안정감, 평범함, 평안함 등 안정 욕구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 기대를 하게 되었고, 자녀에게는 자신과 달리 평범한 가정에 살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부모들은 이전의 삶에서 탈피하면서 직면하고 도전하는 과정 가운데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수용하며 그 과정 안에서 통찰을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어린 시절의 아픔과 불안정한 요소들은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들은 청소년부모와 청소년부모의 가정을 위한 심리 상담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세대 간의 대물림을 막고, 건강한 청소년부모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을 컴퓨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모집되었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 제한적이다. 경제적 물품, 먹거리 지원이 이루어지는 일시 청소년컴퓨터를 이용한 대상이라는 점이 사회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가정이었거나 부모의 지원이 미비한 상황일 수 있어, 다른 청소년부모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 보다 풍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질적 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부모의 출산과 양육 결정 요인으로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요인에 대해

추후 양적연구가 진행된다면 양육의 책임을 위해 애쓰는 청소년부모에게 지금보다 더 폭넓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출산 전과 현재의 삶의 경험을 회고하여 심층 면접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왜곡이나 오류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사실보다 과장되었을 가능성, 방어를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후 연구에서는 현재 시점에 놓인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부모의 경험을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제 대상자 선정과 자료 수집은 20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가진 20세 이상의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함이었고, 따라서 표본의 대표성이 제한적이다. 추후 다양한 연령의 청소년의 연구가 이루어지면 더 폭넓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청소년부모와 원가족, 가정의 어려움 및 장애 요소 파악에도 용이하여 연령별 상담적 접근에 필요한 방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지나 (2015). **빈곤대물림 가족 청소년의 대응기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미영 (2004).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1), 71-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1991. 12. 31). 청소년 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에서 2023. 03. 16 자료 얻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1999. 2. 5). 청소년 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보호법> 에서 2023. 03. 16 자료 얻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09. 6.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 2023. 03. 16 자료 얻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1. 4. 12). 한부모가족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2023. 03. 21 자료 얻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3. 23). 청소년복지 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 에서 2023. 03. 21 자료 얻음.
- 기광도, 이희길 (2004). 가정환경이 자녀비행에 미치는 효과분석:자녀양육의 매개과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5(4), 323-360
- 김미옥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김영희, 유인영, 이희영 (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Giorgi, Colaizzi, Van

- Kaam방법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6), 1208-1220.
- 김성은 (2022). **중고령 기혼여성의 은퇴 후 삶의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신정, 양순옥, 정금희 (2004).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의 실태. *아동간호학회지*, 10(4), 468-478
- 김영정, 구화진 (2019). 청소년 한부모 권리보장과 사회적 지지체계 조성 방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1-158.
- 김은녕 (2019). **지역사회에서 10대 양육미혼모로 살아가기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혜 (2021). 청소년부모 양육지원가의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경험. *디지털융복합연구*, 19(10), 435-451.
- 김혜영 (2010). 십대 청소년 미혼모의 출산 및 양육경험 : 주체와 타자의 경계에서. *한국여성학*, 26(4), 101-131.
- 노충래, 김원희 (2004). 시설거주 미혼모의 입양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7, 49-79.
- 문현미 (2006). **심리적 수용 촉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 수용-전념 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상철 (2019).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트라우마 회복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해맑음센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영미 (2001). **청소년 미혼모의 개인심리적 특성과 가족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혜정, 김지연, 김혜영, 방은령, 김현주 (20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 대책 연구 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52.

- 백혜정, 김지연 (2013). 청소년 한부모의 출산시 상황과 양육태도 및 행동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4(4), 87-117.
- 변윤언, 원희욱 (2017).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녀의 감정 특성에 관한 정량화 뇌파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1), 166-175.
- 서정애 (2009). 십대미혼모의 임신경험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1), 281-308.
- 송명희 (2003).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실태 및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아산시 저소득 모자가정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명호 (2003). 빈곤가정 청소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도시와 빈곤**, 62, 86-98.
- 신옥순 (2004). 질적 연구에서 타당도의 의미. **교육농촌**, 23, 287-301.
- 신혜섭 (2005). 가정폭력 요인과 가족구조 요인이 남녀 학생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7(2), 63-88.
- 여성가족부 (2022).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n,d)
- 윤미현, 이재연 (2001). 10대 미혼모의 유아입양 관련요인들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2(1), 67-82.
- 윤혜미 (1999). 청소년 임신 출산의 경향과 사회적 대책. **한국아동복지학**, 8, 161-186.
- 은주희, 임고운 (2019).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n.p.: 아름다운재단.
- 이남인 (2005). 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 **현상학과 현대철학**, 24, 91-121.
-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파주: 한길사.
- 이명순, 박주현 (2008). 입양을 결정한 10대 미혼모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3), 187-205.

- 이문희, 이수림 (2013). 애착외상(attachment trauma)의 이해와 치료적 함의. **청소년상담연구**, 21(2), 413-448.
- 이문희, 이수림 (2015). 부정적 양육의 대물림 극복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중년여성의 양육경험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6(5), 417-438.
- 이민정 (2019). **대물림된 애착외상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라 (2010). **자기-자비와 심리적 수용, 마음챙김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호, 박지윤 (2021). 청소년부모의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10대에 첫 자녀를 임신한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1), 113-132.
- 이윤정 (2021). 여성 청소년 한부모의 스트레스 수준과 학업지속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이 미치는 영향 : 여가 및 문화, 정보통신비 지원의 조절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9(9), 349-360.
- 이지연 (2001). **시설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효능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2011). 10대 미혼부모의 아기 양육 결정 과정 및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1), 63-93.
- 이현주, 송진아 (2011). 10대 미혼모가 경험한 학업 중단과 의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2(3), 57-83.
- 이혜지 (2015).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비행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복례 (2006).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경, 김승용 (2020). 10대 미혼모로 살아가기 사례분석. **한국지역사회**

- 복지학, 74, 57-82.
- 정현숙 (1993).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적응. *아동학회지*, 14(1), 59-75.
- 조용환 (2012).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5(2), 1-21.
- 조윤진, 김은혜 (2022). 수련 중인 해결중심상담사 발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Giorgi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11(2), 129-156.
- 주성홍, 장동욱, 백지영, 이지영, 손인숙, 김수녕, 조성진 (2005). 미혼모의 출산과 사회복지 실태에 관한 고찰.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48(7), 1760-1766.
- 질병관리청 (2017).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n,d)
- 최승희 (2003). 청소년 미혼모들의 슬픔 관련 요인들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4), 1-20.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3). <https://kosis.kr/index/index.do> 에서 2023. 3. 14 자료 얻음.
- 통계청 (2021). 산후조리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n,d)
- 한영주 (1998). 10대와 20대 미혼모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희선, 김혜선 (1995). 배우자 선택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13(3), 144-155.
- 황은민 (2021). 질적 메타분석을 통한 영유아기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Creswell, J. W., & Poth, C. N. (2018). *질적연구방법론(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2021). 서울: 학지사

- Calhoun, L. G., & Tedeschi, R. G. (2004). AUTHORS' RESPONSE: "The Foundations of Posttraumatic Growth: New Considerations". *Psychological inquiry, 15*(1), 93-102.
- Giorgi, A. (1985).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Phenomenology and psychology research]. 신경림, 장연집, 박은숙, 김미영, 정승은 공역(2004). 서울: 현문사
- Giorgi, A. (1997).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8*(2), 235-260.
- Giorgi, A. (2012).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Psychological Method.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43*(1), 3-12.
- Hogan, D. P., & Kitagawa, E. M. (1985). The impact of social status, family structure, and neighborhood on the fertility of black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4), 825-855.
- Homma, Y., Wang, N., Saewyc, E., & Kishor, N.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abuse and risky sexual behavior among adolescent boys: A meta-analysi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1*(1), 18-24.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Madigan, S., Wade, M., Tarabulsky, G., Jenkins, J. M., & Shouldice, M. (2014). Association between abuse history and adolescent pregnancy: a meta-analysi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5*(2), 151-159.
- McLewin, L. A., & Muller, R. T. (2006). Attachment and social support

- in the prediction of psychopathology among young adults with and without a history of physical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30*(2), 171-191.
- Noll, J. G., Shenk, C. E., & Putnam, K. T. (2009). Childhood sexual abuse and adolescent pregnancy: A meta-analytic update.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4*(4), 366-378.
- Thompson, S. J., Bender, K. A., Lewis, C. M., & Watkins, R. (2008). Runaway and pregnant: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pregnancy in a national sample of runaway/homeless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3*(2), 125-132.
- Trinidad-Noguera, K. I., Chávez-Montes de Oca, V. G., Carrasco-Ponce, B., & Sánchez-Valdivieso, E. A. (2015). Percepción de la relación afectiva con los padres como principal factor que influye sobre el embarazo en adolescentes en Veracruz, México. *Revista sobre la infancia y la adolescencia*, *8*, 75-83.
- Williams, C., & Vines, S. W. (1999). Broken past, fragile future: personal stories of high risk adolescent mothers. *Journal for Specialists in Pediatric Nursing*, *4*(1), 15-23.
- Young, T., Turner, J., Denny, G., & Young, M. (2004). Examining external and internal poverty as antecedents of teen pregnancy.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28*(4), 361-373.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Adolescent Parents' Experiences with Rearing Decisions

Lee, Ji yeon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xperiences of adolescent parents making the decision to rear. For this purpose, the study recruited ten adolescent parents between the ages of 20~24 who had childbirth experiences in adolescence; in addition, they also had the autonomy and spontaneity to report their experiences to a temporary shelter for adolescents in U City. A semi-structured interview were conducted with these adolescent parents in March and April, and collected data was analyzed in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by Giorgi(1985).

The study analyzed the meaning and structure of the experiences of adolescent parents with rearing decisions and found 30 central meanings, ten revealed topics, and four essential topics. The four essential topics are

as follows: struggling to grow up in a childhood that was unhappy, embracing the life in my womb and the indifferent world alone, passing down my unfortunate life trapped in unhappy days, and enduring the weight of my name as a parent.

The findings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adolescents who became adolescent parents had a loss of structural and psychological experiences including parents' divorce, remarriage, and bereavement in childhood; also, a majority of them experienced emotional neglect, physical violence, abuse, and poverty. These experiences made them envy and yearned for an ordinary family and became a catalyst that had important impacts on their childbirth and rearing decisions.

Second, adolescent parents contemplated abortion due to the cold-hearted responses from the people around them, fear, and being at a loss, but they decided not to have an abortion for the mystery of life, responsibility, attachment, value, and ethical judgment. Their major psychological factor was the overwhelming idea that "I will not be a parent like my own." They thus decided to give birth and raise a child. Their resentment towards their parents felt like a desire to offer a stable home to their children when they became parents or had the opportunity because they had the reverse situation growing up. They felt it could be a chance to live a life like that themselves and experienced a process of attempting to escape.

Third, adolescent parents faced a wall of hardship in reality involving frequent fights or breaking up with the spouse, economic difficulties, and dual roles as a young parent. They felt that the bridle of their anxious

childhood was passed down to their children. Going through this process, they had frustration and guilt.

Fourth, they tried to provide a sense of happiness, stability, normalcy, and peacefulness through their families. The stability of a family, the emotional happiness of the child, and economic support from facilities became resources for them to endure their lives as they were going through a challenging process of growing into a true parent.

Finall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iscussed its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need for counseling interventions, and made proposals for a follow-up study.

Keywords: adolescent parent, childbirth, rearing, experience with a rearing decision, Giorgi's descriptive phenomenology

부록목차

부록 1. 모집 안내문

부록 2. 연구 참여자 설명서

부록 3. 연구 참여자 동의서

부록 4.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

부록 1. 모집 안내문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연구 주제: 청소년 시기에 양육을 결정한 부모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본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모집 안내문을 신중하게 읽어보시고, 참여를 희망하거나 참여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를 하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의 주제는 청소년 시기에 부모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입니다. 저는 과거에 청소년 쉼터에서 근무하며 청소년기에 출산 및 양육을 하기로 결심하게 한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그러한 경험의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관련 대상을 위한 탐색적 연구 및 추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인터뷰에서는 연구 주제인 양육을 결정하게 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약 1시간 정도 진행되며 인터뷰 내용은 녹음될 예정이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 동의 하에 1회의 추가 인터뷰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2. 연구 자료 분석 후에는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이 과정은 대면, 전화, 이메일 중 참여자가 선택하신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참여자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참여 중지 시 귀하의 자료는 더 이상 연구에 사용되지 않고 관련된 자료를 즉시 폐기할 것입니다.

4. 본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될 참여자의 경험내용에 대하여 비밀보장을 할 것이며,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연구자는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 모 집 안 내 -----

- 모집기간 : 2023년 2월 10일 ~ 2023년 2월 28일
- 참여기간 : 2023년 2월 ~ 6월 中 순차적으로 진행
- 참여대상 : 만 24세 이하에 출산을 결정하여 현재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 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이자 현재 나이 20대 초반(만 20세 이상~24세 이하)의 성인
- 모집인원 : 10명 내외(선착순 모집 종료)
- 참여방법 : 대면 인터뷰 1회 참여(1시간 내외)
※단, 참여자의 동의 하에 1회에 한하여 추가 인터뷰 요청될 수 있음
- 사 례 비 : 30,000원
- 연 구 자 :
- 연구책임자 :

부록 2. 연구 참여자 설명서

연구대상자 설명서

본 연구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결정 경험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또는 법정대리인)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의 주제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심하게 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입니다. 저는 과거에 청소년 쉼터에서 근무하며 청소년기에 출산 및 양육을 하기로 결심하게 한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그러한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관련 대상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추후 청소년부모에 대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며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연구 대상자들에게 보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연구 참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출산을 하여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 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이자, 현재 나이 20대 초반(만 20세 이상~24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구 참여자는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 자신의 경험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연구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연구의 본 연구의 참여하는 인원은 10명 내외가 될 예정입니다.

10. 연구 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 연구자:
- 연구 책임자: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성신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성신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부록 4.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

시간성	주요질문
출산 전	양육을 결정하기 이전의 나의 개인적인 일상 생활이나 삶이 어떠했는지요?
출산 결정 시기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나와 주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양육을하기로 결정한 경험이 어떠했는지요? 그 당시에 어떤 감정들이 들으셨나요?
출산 후	출산 및 양육을 하면서 주변인과의 관계나 생각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 경험은 어떠하셨나요? 청소년부모로서 양육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